

## 《素問·方盛衰論》에 대한 연구

오이수 · 육상원<sup>1</sup> · 노승조 · 천상묵 · 김종호 · 정현종 · 이종순<sup>2</sup> · 정현영\* · 금경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1: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2: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문현정보학과

### Study on the Fang Sheng Shuai Lun of Su Wen

Yi Soo Oh, Sang Won Yuk<sup>1</sup>, Seung Jo Roh, Sang Muk Cheon, Jong Ho Kim,  
Hyun Jong Jeong, Jong Soon Lee<sup>2</sup>, Heon Young Jeong\*, Kyung Soo Keum

Department of Classics,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1: Department of Classics,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2: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The contents of Fang Sheng Shuai Lun(方盛衰論) is the rise and fall of five viscera(heart, lungs, liver, spleen, kidneys)'s Yin-Yang Energy is related to change of human body's condition and how to diagnose this change. This chapter comment on change of Yin-Yang Energy under seasons and age, change of dream under deficient of five viscera's chi, notice of diagnosis and diagnostic technique on deficient of five viscera's chi.

**Key words :** Fang Sheng Shuai Lun(方盛衰論), Su Wen(素問)

### 서 론

본편은 《黃帝三部鍼灸甲乙經》에는 권6제7「陰陽大論」에 編述되어 있고, 《黃帝內經太素》에는 《新校正》에 《太素》의 原文를 이끌어 注釋하였지만 《太素》에서는 本篇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新校正》에 “《全元起本》에는 제8권에 있다.”고 하였는데, 唐의 王冰이 注釋을 하면서 권24제80에 編述하였으며, 《類經》에는 18권 「疾病類」와 5권 「脈色類」에 나뉘어 編述되어 있다.

‘方’은 비교한다는 뜻이고, 盛衰는 陰陽氣血의多少를 말하는데, 본편에는 陰陽氣의 盛衰를 비교하여 論述하고 아울러 診斷法을 언급하였으므로 篇名을 ‘方盛衰論’이라 하였다.<sup>1)</sup>

본편의 내용은 2장 2절로 나눌 수 있는데, 제1장 1절에는 陰陽氣의 左右와 四時 및 연령에 따른 逆從을, 2절에는 五臟氣虛로 인하여 나타나는 꿈에 대하여 論하였다. 제2장 1절에는 十度 즉 脈度 · 腸度 · 肉度 · 筋度 · 膜度와 진단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고, 2절에는 진찰하는 大法을 논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편은 四時와 老少에 따른 陰陽氣의 차이점을 익혀 진단에 도움을 주고, 꿈을 해석하여 五臟의 虛實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진단할 때에 주의해야 할 내용과 요령을 자세히 제시

하고 있어서 진단에 속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연구방법

本篇의 내용을 具體的으로 把握하기 위하여 内容別로 章·節로 나누고 原文에 懸吐와 校勘, 字句解, 較註, 直譯 및 意譯을 하고 考察을 하였다.

가. 原文은 王冰의 《珍倣宋版印本》<sup>2)</sup>에 準하였고, 林應秋의 《黃帝內經章句索引》<sup>3)</sup>을 中心으로 張介賓의 《類經》<sup>4)</sup>, 程士德의 《素問註釋匯粹》<sup>5)</sup>를 參考하여 四章六節로 나누었다.

나. 懸吐는 傳來의 懸吐方式을 原則으로 하였다.

다. 校勘은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sup>6)</sup>, 林億의 《新校正》<sup>7)</sup>, 《郭闢春》의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sup>8)</sup>, 河北醫學院의 《黃帝內經素問校釋》<sup>9)</sup> 등 표1을 參考하였다.

라.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1) ◎姚: 方은 比也요 盛衰者는 陰陽之氣也니 謂謂陰陽二氣之盛衰하야 而比論之也라 然이나 前은 以論盛衰로 引端하고 而後半은 兼言診法焉이라

2) 王冰: 黃帝內經太素, 珍倣宋版印, 中華書局.

3) 林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4) 張介賓: 原本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2.

5) 程士德: 素問註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7) 林億: 補注黃帝內經素問, 中華書局, 台北, 1966.

8) 郭闢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1.

9) 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 교신저자 : 정현영, 전북 이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jikjae@wonkwang.ac.kr · Tel : 063-850-6808

· 접수 : 2004/08/13 · 수정 : 2004/09/10 · 채택 : 2004/10/04

取擇하였다.

마. 較註는 표2의 10種 文獻의 註釋들 가운데서 類似한 內容別로 모았으며 모은 註 가운데서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그 原文들은 脚註를 달아서 參考하도록 하였다.

바. 直譯은 原文의 句讀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사. 意譯은 含蓄된 뜻까지 理解되도록 附言하여 解釋하였다.

야.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較註에 [ ], 字句解에 ( ), 校勘에 ), 引用文獻에 《 》로 表示 하였으며, 論文이나 篇名에는 < , 脚註는 1), 2), 3)…의 一聯番號로 表示하였다.

표 1. 校勘에 引用한 書目

番號	書名	略稱	備考
1	黃帝內經太素	太素	
2	說文解字	說文	
3	黃帝三部鍼灸甲乙經	甲乙經	
4	全生指迷方		
5	聖濟總錄		
6	諸病源候論	病源	
7	素問譏		
8	明萬曆壬子閏建杏林山房刻本 明續谷書林周日校刻本	滑抄本 周本	語譯參照
9	元刻殘本	元殘二	"
10	明嘉靖間金谿吳悌校刊本	吳本	"
11	明萬曆四十三年朝鮮內醫院刻本	朝本	"
12	涵芬樓影印明正統道藏書	藏本	"
13	明成化十年熊氏種德堂刻本	熊本	"
14	素問注釋匯粹	匯粹	
15	素問札記		匯粹參照
16			

표 2. 研究資料 書目

番號	著者	年代	書名	略稱
1	王冰	唐	黃帝內經素問	王
2	馬蒼	明	黃帝內經注證發微	馬
3	吳崑	明	黃帝內經素問吳註	吳
4	張介賓	明	類經	景岳
5	張志聰	清	素問集註	張
6	高士宗	清	素問直解	高
7	山東省中醫學院	1958	黃帝內經素問白話解	白話解
8	王玲 等	1981	黃帝內經今釋	今釋
9	程士德	1982	素問注釋匯粹	匯粹
10	郭鴻春	1981	黃帝內經語譯	語譯
11	河北醫學院	1982	黃帝內經素問校釋	校釋

## 연구내용

### 1. 제1장 陰陽의 逆厥과 夢

#### 1) 제1절 陰陽의 逆厥

##### 【原文】

雷公(1)이 請問 氣之多少에 何者爲逆이며 何者爲從이니하고 黃帝答曰 陽從左하고 陰從右)하니며 老從上하고 少從下라 是以로 春夏에는 歸陽이 為生)이오 歸秋冬이 為死니 反之면 則歸秋冬이 為生이라 是以로 氣多少에 逆)이 皆爲厥이라 問曰 有餘者도 厥耶잇가 答曰 一上不下하면 寒厥到膝하니 少者는 秋冬에 死하고 老者는 秋冬에 生이라 氣上不下하면 頭痛嶺疾)하니 求陽不得하고 求陰不審)하고 五部隔無徵하야 若居曠野하고 若伏空室하야 縱縛(2)乎屬(3)하야 不滿日)이라

##### 【校勘】

① 陽從左 陰從右: 《甲乙》 권6제7에는 '陽從右陰從左'로 되어 있다.

② 春夏歸陽爲生: 語譯은 "于<sup>1</sup>은 '春夏歸陽'은 아마도 '陽歸春夏'로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아래 구절의 '歸秋冬爲死'와 짹이 된다. 下文의 '反之則歸秋冬爲生'에서 '反之'는 陽을 뒤집어 陰이 된다는 말인데, 이 구절이 한번 잘못됨으로 인하여 下文도 뜻이 소통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③ 氣多少逆: 《甲乙》 권6제7에는 '氣之多少逆順'으로 되어 있다.

④ 頭痛嶺疾: 《甲乙》 권6제7에는 '頭疾嶺疾'로 되어 있다.

⑤ 求陰不審: 《甲乙》 권6제7에는 '求之於陰'으로 되어 있다.

⑥ 縱縛: 《張馬合編》에는 '綿綿'으로 되어 있다.

⑦ 不滿日: 《甲乙》 권6제7에는 '不滿目'으로 되어 있는데, 語譯도 '不滿目'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 【字句解】

① 雷公: 상고시대 전설의 인물로 황제의 신하이다.

② 縱縛: 오래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는 모양. 縱: 솜면

③ 屬: 連續, 이을속

##### 【較註】

① 氣之多少 何者爲逆 何者爲從

馬는 "이것은 氣는 左右 老少 四時에 모두 順逆이 있는데,逆行하면 厥이 됨을 언급하였다."<sup>10</sup>고 하였고, 景岳·張·高 등은 "氣는 陰陽의 氣이다. 多는 盛, 少는 衰와 같다. 人身의 陰陽氣에 많아서 盛함이 있고, 적어서 衰함이 있으므로 盛衰의 법칙에 逆과 從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逆이며 어떤 것이 從인가를 물은 것은 氣의 盛衰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고 하였다.

② 陽從左 陰從右

王·馬·吳·姚 등은 "陽氣의多少는 모두 左로부터 生하고, 陰氣의多少는 모두 Right로부터 生하는데, 이처럼 從하는 것은 順이 되고, 이와 반대로 하는 것은 逆이 된다. 그러므로 「陰陽應象大論」에 '左右라는 것은 陰陽의 道路이다'고 하였다."<sup>12</sup>고 하였고, 景岳·白話解 등은 "氣의多少와 逆從은 陰陽의作用으로 분별하니, 陽氣는 上승을 주관하므로 左로부터 Right로 行함이 順이고, 陰氣는 하강을 주관하므로 Right로부터 Left로 行함이 順이다. 이와 반대로 行하면 逆이 된다."<sup>13</sup>고 하였으나, 張·高 등은 "四時

10) ○馬: 此는 言氣在左右老少四時에 皆有順逆 而逆之則爲厥也라

11) ○景岳: 多는 言盛衰也라 ○張: 氣之多少는 間陰陽之氣有多有少라 逆者는 謂四時老少之氣 逆行이오 從은 順也라 ○高: 氣는 陰陽之氣也라 多는 猶盛也요 少는 猶衰也라 人身陰陽之氣에 有多而盛하고 有少而衰하여 盛衰之道에 有逆有從이오 何者爲逆 何者爲從은 所以方氣之盛衰也라 ○語譯: 多는 謂盛衰다

12) ○王: 陽氣之多少는 皆從左하고 陰氣之多少는 皆從右하니 從者爲順이오 反者爲逆이라 陰陽應象大論에 曰 左右者는 陰陽之道路也라하나니라 ○馬: 氣之屬陽者는 在左爲順이오 氣之屬陰者는 在右爲順이라 ○吳: 陽氣之多者는 從左하고 陰氣之多者는 從右하니 從者爲順이오 反者爲逆이라 ○姚: 陽氣之多는 皆從左하고 陰氣之多는 皆從右하니 從者爲順이오 反者爲逆이라 陰陽應象大論에 曰 左右者는 陰陽之道路也라하나니라

13) ○景岳: 陽氣는 主升 故로 從乎左하고 陰氣는 主降 故로 從乎右하니 從者爲順이오 反者爲逆이라 ○白話解: 氣의多少逆從은 是從陰陽上來分別이라 陽氣는 主升하니 所以從左而右爲順이오 陰氣는 主降하니 所以從右而左爲順이라 反此면 就是逆이라

의 氣는 春夏가 陽, 秋冬이 陰이 되므로 陽從左라는 것은 春夏의 氣가 左로부터 右로 行함을 말한 것이고, '陰從右'라는 것은 秋冬의 氣가 右로부터 Left로 行함을 말한다.<sup>14)</sup>고 하였다.

- 考察 : 王 등은 '陽左 陰右로 生함'으로 설명하였고, 景岳 등은 '陰陽氣의 작용, 즉 上升下降'에 입각하여 설명하였고, 張 등은 '四時氣運'까지 들어서 설명하였다.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左側은 陽氣가 강한 쪽이고, 右側은 陰氣가 강한 쪽이다는 뜻이다.

### ③ 老從上 少從下

王 · 馬 · 姚 등은 "노인은 穀氣가 줄기 때문에 위에서 하행하는 것이 順이고, 젊은 사람은 慾望이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상행하는 것이 順이다."<sup>15)</sup>고 하였고, 吳 · 語譯 등은 "노인은 陽氣의多少가 위로부터 하강하고, 젊은 사람은 陽氣의多少가 아래로부터 상승하니 이처럼 從하는 것은 順證이지만 반대로 하는 것은 逆證이다."<sup>16)</sup>고 하였으며, 景岳 · 白話解 · 今釋 등은 "비유하자면 노인은 그 氣가 하부가 먼저 쇠약해지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강하는 것이 順이고, 젊은 사람은 그 氣가 하부가 먼저 盛해지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상승하는 것이 順이 된다. 이와 반대는 逆證이다."<sup>17)</sup>고 하였고, 張 · 高 · 黃 등은 "노인의 氣는 위로부터 하강하니 마치 秋氣가 위에서 시작하여 점차 아래에서 쇠약해짐과 같고, 젊은 사람의 氣는 아래로부터 상승하니 마치 春氣가 아래에서 시작하여 점차 위에서 盛해짐과 같다."<sup>18)</sup>고 하였다.

- 考察 : 위 문장의 내용은, 노인은 氣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順이고, 젊은 사람은 氣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順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氣'에 대해서는 注釋家마다 차이가 있으니, 王 등은 '氣'를 육망의 상태로 보아, 노인은 육망의 감쇠로 인하여 氣가 하행하는 것이 順이고, 젊은 사람은 육망이 증가하여 氣가 상승하는 것이 順이라고 하였고, 吳 등은 '氣'를 '陽氣'라 지목하였으며, 景岳 등은 '氣'에 대해 특별히 지목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陽氣'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欲'은 食欲, 色欲 등 '陽氣'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王 등의 해석도 결국 같은 뜻이되 다만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였을 뿐이다.

### ④ 春夏歸陽爲生 歸秋冬爲死

- 14) ○張: 四時之氣는 春夏爲陽이오 秋冬爲陰이니 陽從左者는 謂春夏之氣從左而行于右요 陰從右者는 謂秋冬之氣從右而行于左라 ○高: 騽明而治曰 左陽右陰 故豆 陽從左하고 陰從右라 四時之氣는 秋冬爲陰이니 從上而下하고 春夏爲陽이니 從下而上이라 ○黃: 陽은 從左升하니 春夏之令也요 陰은 從右降하니 秋冬之令也라
- 15) ○王 ·姚: 老者は 穀衰 故로 從上爲順이오 少者は 欲甚 故로 從下爲順이라 ○馬: 老者は 穀衰 故로 在上爲順이오 少자는 慾甚 故로 在下爲順이라
- 16) ○吳: 老人은 陽氣之多少가 從上하고 少者는 陽氣之多少가 從下하니 從者爲順이나 反者爲逆이라 ○語譯: 老年之氣는 從上而下하고 少年之氣는 從下而上이라
- 17) ○景岳: 老人之氣는 先衰于下 故로 從上者爲順이오 少壯之氣는 先盛于下 故로 從下者爲順이라 天生之生氣는 必自下而升이오 而人氣亦然이라 故로 凡以老人而衰于上者는 其終을 可知요 少壯而衰于下者는 其始를 可知니 皆逆矣也라 ○白話解: 諸如老年人은 其氣先衰于下 故로 從上爲順이오 少年人은 其氣先盛于下 故로 從下爲順이니 反此는 就是 逆이라 ○今釋: 老年人氣는 先衰于下 故로 從上爲順이오 少年人氣는 先盛于下 故로 從下爲順이라
- 18) ○張: 老者之氣는 從上而下하니 猶秋氣之從上而方衰于下요 少者之氣는 從下而上하니 猶春氣之從下而方盛于上이라 ○高: 老從上하고 少從下하니 老者는 為秋冬之陰이오 少는 為春夏之陽也임세라 ○黃: 老者는 如秋冬이나 則陰從上降이오 少者는 如春夏니 則陽從下升이라

王 · 姚 등은 "歸秋冬은 도리어 陰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니, 陰으로 돌아가면 殺伐의 氣를 따르기 때문에 죽게 된다."<sup>19)</sup>고 하였고, 馬 · 吳 · 景岳 등은 "봄여름은 陽氣가 翁성한 때이므로 褐證과 脈이 모두 陽證으로 나타나는 者는 生하게 되지만, 만약 秋冬처럼 陰의 證候가 나타나는 者는 逆이 되어 死한다."<sup>20)</sup>고 하였으며, 張 · 高 · 白話解 · 今釋 등은 "봄여름의 生發하는 氣는 左로부터 右로 행하듯이 陽적인 반응을 하면 生하게 되지만, 만약 右로부터 左로 행하듯 가을겨울에 일어나는 陰적인 반응을 하면 死하게 된다."<sup>21)</sup>고 하였으나, 黃 · 語譯 등은 "陽證은 봄여름이 되면 生하고 가을겨울이 되면 死하는데, 陽證이 春夏에 生하고 秋冬에 死하는 것은 젊은 사람의 경우이다."<sup>22)</sup>고 하였다.

### ⑤ 反之則歸秋冬爲生

王 · 姚 · 馬 · 吳 · 景岳 등은 "反之는 秋冬이니 秋冬에는 陽氣가 收藏하기 때문에 陰이 盛한 것이 順이 되므로 生이라 하였다."<sup>23)</sup>고 하였으나, 高는 "만약 반대로 하는 것은 즉 秋冬으로 돌아가면 死한다는 것이 秋冬으로 돌아가면 도리어 生한다는 말이니, 도리어 生하게 되는 것은 氣가 逆한 것이다."<sup>24)</sup>고 하였고, 黃 · 語譯 등은 "만약 반대로 되면 秋冬으로 돌아가는 것이 生이 되므로, 陰이 秋冬에 生하여 春夏에 載어드는 것은 노인의 氣變化에 해당한다."<sup>25)</sup>고 하였다.

### ⑥ 氣多少逆 皆爲厥

王 · 吳 · 姚 등은 "陽氣의 많고 적은 반응이 도리어 右로부터 작용하고 陰氣의 많고 적은 반응이 도리어 左로부터 작용하는 것은 順證이 아니기 때문에 '氣少多逆'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반대로 左로부터 하거나 右로부터 하여 順하지 못한 경우는 모두 厥이 되므로 厥은 氣가 逆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皆爲厥'이라고 하였다."<sup>26)</sup>고 하였고, 馬 · 張 · 高 · 黃 · 白話解 등은 "노인은

19) ○王 ·姚: 歸秋冬은 謂反歸陰也니 歸陰則順殺伐之氣故也라

20) ○馬: 春夏에 或病或脈이 歸陽은 為生이나 若陰病陰脈如秋冬者는 為死라 ○吳: 春夏歸陽은 謂春夏之時에 寸脈盛也요 歸秋冬者는 尺脈盛也니 陽氣故豆 生하고 逆陽氣故로 死라 ○景岳: 春夏는 以陽盛之時니 或證或脈이 皆當歸陽은 為生이나 若得陰候如秋冬者는 為逆為死라

21) ○張: 春夏之氣가 歸于陽之從左而右는 氣之順也 故豆 為生氣요 歸于秋冬之從右而左는 氣之逆也 故로 為死氣다 ○白話解: 春夏生發之氣는 從左而歸陽하면 就爲生이오 若從陰而歸秋冬하면 就爲死라 ○高: 人身은 春夏之時에 其氣歸陽이 為生이오 歸秋冬之陰이 為死라 ○今釋: 春夏時에 人之正氣旺于陽하면 則人與天地相應 故로 為順爲生이오 若此時에 陽氣歸陰(秋冬)하면 為逆于時令 故로 死라

22) ○黃: 陽歸春夏爲生이오 歸秋冬爲死니 陽生於春夏而死於秋冬은 少者之氣候也라 ○語譯: 陽歸春夏는 則爲順이니 為生이오 陽歸秋冬은 則爲逆이니 為死라

23) ○王 ·姚: 反之는 謂秋冬이니 秋冬에는 則歸陰이 為生이라 ○馬: 反之는 則秋冬이니 秋冬에는 則歸陰이 為生이나 若陽病陽脈如春夏者는 為死라 ○吳: 反之는 為秋冬이니 秋冬에는 陽氣收藏하야 陰盛이 為順 故로 生이라 ○景岳: 反之는 謂秋冬이니 秋冬에는 以陰盛陽衰之時 故豆 歸陰爲順이니 生이라이나 然이니 不曰歸春夏爲死者는 可見陰中有陽이니 未必至害나 而陽爲陰賊을 乃不免矣라 ○張: 反之는 謂秋冬之氣니 歸于陰之從右而左는 為生이오 歸于春夏之從左而右는 為逆이라 ○白話解: 相反的若 霹殺之氣는 從陰而歸秋冬하면 則爲生이라 ○今釋: 相反의야 秋冬時節에 氣旺于陰하면 則爲順 故로 生하고 氣旺于陽하면 為逆 故로 死라

24) ○高: 若反之는 則歸秋冬爲死者가 歸秋冬反爲生이니 反之而生은 氣之逆也라

25) ○黃: 若反之면 則歸秋冬이 為生이니 陰生於秋冬而死於春夏는 老者之氣候也라 ○語譯: 反過來說하면 陰歸秋冬은 則爲順이니 為生이오 陰歸春夏는 則爲逆이니 為死라

26) ○王 ·姚: 陽氣之多少가 反從右하고 陰氣之多少가 反從左는 是爲不順이라 故로 曰氣少多逆也라 如是從左從右之不順者는 皆爲厥이니 厥謂

陰氣가 많고 陽氣가 적으며 짚은 사람은 陽氣가 많고 陰氣가 적어서 그 氣의多少가 있으나 上逆하면 모두 厥症이 된다. 厥이라는 것은 升降作用이 거꾸로 行하여 手足이 寒冷하게 되는 것이다.”<sup>27)</sup>고 하였고, 景岳은 “氣에多少가 있으면 陰陽이 不和한 것 아니 不和하면 逆하게 되기 때문에 厥症이 된다.”<sup>28)</sup>고 하였다.

#### ⑦ 問曰 有餘者 厥耶

王·張·白話解 등은 “陰陽의 氣가 有餘한 것도 厥病이 되는가를 물은 것이다.”<sup>29)</sup>고 하였고, 吳는 “이것을 물음으로써 下文을引起하였다.”<sup>30)</sup>고 하였으며, 景岳·姚·黃 등은 “적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많은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陽厥은 陽이 많고 陰厥은 陰이 많은 것이니, 이런 陽厥 陰厥이 모두 그 원인이 有餘인가를 의심한 것이다.”<sup>31)</sup>고 하였고, 高는 “逆症은 다 厥症이 되므로 장차 生氣가 고갈될 것이다. 따라서 有餘한 것이 厥症이 될 수 있는 가를 물은 것이다.”<sup>32)</sup>고 하였다.

#### ⑧ 一上不下 寒厥到膝 少者秋冬死 老者秋冬生

王·馬·姚·白話解 등은 “陽氣가 계속 상승하고 하강하지 못하여 陽이 상승만 하면 하부가 虛해지고 하부가 虛하면 차가 워진다. 만약 寒厥이 膝部까지 이르게 되면, 짚은 사람은 陽氣가 막盛한 시절인데 이런 厥症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람의 陽氣가 이미 극도로 쇠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니 陰氣가 盛한 秋冬이 되면 마땅히 死하지만, 노인은 陽氣가 이미 쇠약한 연령이므로 下體가 虛寒한 것이 흔히 있어 월년 일이므로 가을겨울이 오더라도 특별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sup>33)</sup>고

氣逆 故曰 曰皆爲厥也라 ○吳: 逆은 謂反其從左從右 從上從下 歸肺歸陰之常也요 厥은 痘厥也라

27) ○馬: 人之氣에有多少하나 逆之면 則皆能爲厥也라 ○張: 氣之無論多少하고 逆者는 著爲厥也라 此節은 總提四時老少之氣高底而先論其天氣之順逆焉이라 閔士先이 曰 此는 與五常政大論의 春氣始於左하고 秋氣始於右하며 春氣始於下하고 秋氣始於上으로 同義라하니라 ○高: 陰陽之氣에無論多少하고 若逆之면 則皆爲厥矣라 ○黃: 老자는 陰氣多而陽氣少하고 少자는 陽氣多而陰氣少하야 氣有多少하나 逆하면 皆爲厥이라 厥자는 升降倒行而手足寒冷也라 ○白話解: 無論氣의多少盛衰하고 凡是屬於逆的은 就都爲厥이라 ○今釋: 無論氣의盛衰多少하고 凡是逆은 就會造成厥이라 ○譯譜: 不論氣盛氣衰하고 只要不順은 就都會成爲厥症이라

28) ○景岳: 氣有多少하면 則陰陽不和하니 不和하면 則逆 故曰 厥也라

29) ○王: 言少之不順者爲逆이니 有餘者는 則成厥逆之病乎아 ○張: 復問人氣之逆에 乃有餘者도 厥耶아 ○白話解: 雷公이 問 陰陽之氣有餘의도 厥成爲厥吗아

30) ○吳: 發此問하야 以起下文이라

31) ○景岳: 有其少면 必有其多 故曰 以陽厥多陽하고 陰厥多陰하니 皆疑其爲有餘也라 ○姚: 言厥은 為氣逆이니 雖兼氣之多少나 意必有餘者多이라 ○黃: 有餘은 氣多者也라

32) ○高: 逆은 皆爲厥이니 生氣將竭이라 故로 舉有餘以 問이라

33) ○王·姚: 一經之氣逆하야 上而陽氣不下者를 何以別之요 寒厥到膝이라 是也라 四支者는 諸陽之本이라 當溫而反寒上 故로 曰寒厥也라 秋冬은 謂歸陰이나 歸陰 則從右發生其病也라 少者는 以陽氣用事 故로 秋冬에死하고 老者は 以陰氣用事 故로 秋冬에 生이라 新校正에 云 按楊上善云 處者는 厥也니 陽氣一上於頭하야 不下於足하면 足脛虛 故로 寒厥至膝이라하니라 ○馬: 此는 言陰氣有餘하면 為寒厥이로대 老少之生死가 係于時하야 病證之難據가 積于危也라 按厥論에 言足經三陰之氣가 起于五指之裏하야 集于足下而聚于膝上 故로 陰氣勝하면 則從五指至膝上 寒이로대 但其寒은 不在外廉 而在內廉耳라하니 此에 曰一上不下하면 寒厥到膝者도 有以也라 然이나 少者는 以陽氣用事 而秋冬發爲寒厥하면 則陽衰之甚也 故로 曰死요 老者は 以陰氣用事 而秋冬發爲寒厥하면 則陰氣未衰也 故로 曰生이라 ○白話解: 陽氣가 一直的上升而不下降하야 陽上升則下部虛하고 下虛則寒이라 若寒厥而至於膝部하면 在少年人은 是陽氣正盛的時候이니 若發現這種現象하면 譲明他陽氣衰弱已極이니 到秋冬陰氣盛的時候 故로 當死어니와 老年人은 是陽氣已衰的時期

하였고, 吳·景岳 등은 “陽이 逆上하여 하강하지 못하면 寒厥이 膝까지 이르는데, 노인은 陽氣가 상부에 있으니 膝이 寒한 것이 오히려 可하지만 짚은 사람은 陽氣가 하부에 있으니 膝이 寒한 것이 逆證이 된다. 짚은 사람의 陽氣가 쇠약하지 않을 때에 쇠해졌기 때문에 陰이 盛한 때를 가장 두려워 할 것이고, 노인은 陽氣가 쇠약한 것이 본래 정상이기 때문에 秋冬에도 걱정할 것이 없다.”<sup>34)</sup>고 하였으나, 張·高 등은 “陰陽의 氣가 서로 順接하지 못하면 厥症이 된다. 만약 陰氣가 한번 상승하여 陽氣가 하강하지 못하면 陰盛陽虛하기 때문에 寒厥이 膝까지 이르는데, 짚은 사람은 陰陽血氣가 이제 막 盛한 시기이므로 寒厥이 膝에 도달한 채로 秋冬의 陰氣가 行하면 死하게 되지만, 노인은 陰陽血氣가 바야흐로 쇠약한 시기이므로 寒厥이 膝까지 이를 채로 秋冬의 陰氣가 行하여도 오히려 生하게 된다. 이것은 陰盛陽虛하여 寒厥이 膝까지 이르게 되는 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sup>35)</sup>고 하였으며, 黃은 “陰氣가 降敝하여 陽氣가 九地에 驟居하면 하부가 따뜻한 것인데, 厥症은 陽氣가 한번 상승하고 하강하지 못해서 寒厥이 膝까지 이르는 것이다. 짚은 사람이 秋冬에 死한 것은 짚은 이로서 陽氣가 하부에서 쇠약해진 것이므로 逆證이 되고, 노인이 秋冬에 生한 것은 늙은이로서 陽氣가 하부에서 쇠약해진 것이므로 順證이 된다.”<sup>36)</sup>고 하였다.

- 考察 : ‘寒厥’이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張과 高는 ‘陰氣上升’으로 보아서 다른 注釋家の ‘陽氣가 上升하되 하강하지 않아서 厥證이 생긴다’는 것과 차이가 있으나, 결국 陽氣가 上升하고 下降하지 않으면 下部는 陰氣가 盛하므로 내용은 한가지이다.

#### ⑨ 氣上不下 頭痛巔疾

王·馬·吳·景岳·白話解 등은 “陽氣가 만약 상승해서 하강하지 못하면 上實下虛를 형성하여 頭痛 및 巔頂의 疾病을 일으킨다.”<sup>37)</sup>고 하였고, 張은 “氣는 一陽의 氣이므로 氣가 상승하고 하강하지 못해서 頭痛과 巔疾이 발생한 것은 陽氣가 아래서 부터 巔頂으로 곧바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 글 아래에 마땅히 ‘少者春夏生 老者春夏死’의 句節이 있어야 하나 혹

니 其下部虛寒이 是常有的事情이니 所以로 雖在秋冬이니 不是反常의 現象이라 能生存이라

34) ○吳: 陽氣逆上而不下하면 則陰并于下 故로 寒到膝이어늘 老인은 陽氣從上하니 膝寒爲順이오 少者は 陽氣從下하니 膝寒爲逆이라 秋冬은 陽衰陰王之時니 寒厥益甚이라 少者は 為逆 故로 死하고 老자는 為順 故로 生이라 ○景岳: 陽逆于上而不下하면 則寒厥到膝이어늘 老인은 陽氣從上하니 膝寒猶可어니와 少年은 陽氣從下하니 膝寒爲逆이라 少年之陽이 不當衰而衰者라 故로 最畏陰勝之時요 老인은 陽氣本衰하니 是其常也라 故로於秋冬에 無慮焉이라

35) ○張: 一者는 一陰之氣이니 上不下하야 寒厥到膝은 陰氣自下而上이 오 從井而至合이라 陰氣上行은 秋冬之令也 故로 老者爲順이오 少者は 為逆이라 此는 蓋以人之陰陽으로 而應天地之四時也라 ○高: 陰陽之氣가 不相順接하면 便爲厥이라 如陰氣一上하야 陽氣不下하면 則陰盛陽虛 故로 寒厥到膝이라 少자는 陰陽血氣方盛하니 寒厥到膝하야 而行秋冬之氣하야 則死하나 老자는 陰陽血氣方衰하니 寒厥到膝하야 而行秋冬之氣하야도 猶生이라 此는 陰盛陽虛하야 致有寒厥到膝之病也일세라

36) ○黃: 陰氣降敝하야 陽氣九地하면 則下緩이어늘 厥家는 陽氣一上不下하야 寒厥到膝이라 少者秋冬則死는 年少而陽下衰하니 是爲逆也요 老者秋冬則生은 年老而陽下衰하니 是爲順也라

37) ○王: 巔은 謂身之上이니 巔疾은 則頭首之疾也라 ○馬: 且其爲病也가 氣上不下 故로 為頭頸之病 而其證尤有可畏라 ○吳: 下虛上實故也라 此謂頸疾은 有崩潰復仆之義라 ○景岳: 巔은 頂巔也라 上實下虛 故로 痘如此라 ○白話解: 陽氣若上升而不下降하면 就形成上實下虛하야 而爲頭痛巔頂疾病이라

시 竹簡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 상고컨대 이 두 구절(一上不下…, 氣上不下…)은 사람의 阴陽二氣가 아래로부터 상승하여 天의 四時와 나이의 老少에 상응하는 것인데, 거듭 ‘不下’ 2자가 있음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대개 하루 중과 한시간 사이에 阴氣이 출입하고 상하로 순환할 때에 四時와 老少의 氣 차이가 있으므로, 만약 상승해서 하강하지 못하면 厥逆이 생길텐데, 어째서 寒厥이 膝까지 이름에 노인은 秋冬에 생활 수 있겠는가? 이므로 下文에 이를 말하였다. 倪仲玉이 阴氣를 논할 때에 ‘寒厥到膝’이라하고 阳氣를 논할 때에 ‘頭痛顱疾’이라하였는데, 이는 阳氣는 頭頂까지 直上하고 阴氣는 膝까지만 이르는 것인가를 묻기에는 아니라고 답하였다. 대개 阴陽二氣가 上下에서 서로 함께 하는 것은 마치 天의 寒暑가 痘瘍함에 따라 四時가 生長收藏하는 것과 같다. 무릇 肌腠의 氣分은 阳이 되고 經脈의 血分은 阴이 되나 阴氣는 阳에서 생하고 阳氣는 阴에서 생한다. 그러므로 出하는 것이 井穴이 되는 것은 阳氣가 阴으로부터 脈의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이 井穴이 되는 것이고, 入하는 것이 合穴이 된다는 것은 阴氣가 阳分으로부터 經脈안으로 들어가고 또 井穴로부터 合穴에 이르러야 華血과 서로 만나기 때문에 入하는 것이 合穴이 된다고 하였다. 대개 井穴로부터 合穴에 이르는 것은 五行의 氣가 이미 一周를 마치고 다시 散行하여 올라가는 것이다. 예측컨대 寒厥病이 肘膝에서 시작하였으나 阳氣를 회복할 수 없으면 점차 頭頂까지 다 冷하게 될 것이니 이는 阴血氣가 始生하고 出入하는 중요한 이치이므로 학자는 이를 자세히 參求치 않으면 안된다.”<sup>38)</sup>고 하였으며, 高는 “만약에 阳氣가 상승하여 阴氣가 하강하지 못하면 阳盛陰虛하게 되어 頭痛과 顱疾의 病을 일으킨다.”<sup>39)</sup>고 하였고, 姚는 “氣血이 상행하면 足寒이 膝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장차 상부의 頭頸까지도 필히 痘瘍게 된다.”<sup>40)</sup>고 하였다.

#### 10 求陽不得 求陰不審 五部隔無徵

王 · 馬 · 景岳 ·姚 등은 “陽이라 한 것은 阴盛한 脈과 비슷하고 阴이라 한 것도 阳盛한 脉과 비슷하기 때문에 陽을 찾으나 얻지 못하고 阴을 찾으나 살피지 못한다고 하였다. 五部는 五藏의 부분을 말하고, 隔은 멀리 떨어짐을 말하고, 無徵은 信驗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陽證을 찾으나 그 熱을 얻지 못하고 阴證을 찾으나 寒을 살피지 못하여 五藏의 부분도 멀리 떨어져서 信驗할 수 없기 때문에 ‘求陽不得 求陰不審 五部隔無徵’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氣逆이 오래되어서 생긴 것인지 阴陽寒

熱의 氣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sup>41)</sup>고 하였고, 吳 · 黃 · 白話解 등은 “이제 그 氣가 상승하고 하강하지 못해서 頭痛과 顱疾이 발생하였을 때, 陽이 많다고 보아 陽을 찾으나 얻지 못한 것은 그 하부에 陽이 없기 때문이고, 阴이 많다고 보아 阴을 찾으나 살필 수 없는 것은 그 상부에 阴이 없기 때문이며, 五藏의 부분이 떨어져 있어 徵驗 할 수 없어서 陽인지 阴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sup>42)</sup>고 하였으며, 張은 “노인은 위에서부터 시작하고 젊은 사람은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린이에서 노인까지의 백년을 四時로 나눈 것이고, 陽은 左로부터 시작하고 阴은 右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天地간의 일년의 四時를 말하는 것이고, 朝는 春, 日中은 夏, 日入은 秋, 夜半은 冬이 되는 것은 하루에도 四時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도 일년 중에 春夏가 있고 하루 중에 春夏가 있으며, 少人도 일년 중에 秋冬이 있고 하루 중에도 秋冬이 있으므로 一年과 一日의 四時變化에 순응할 수 있다면 百歲동안의 氣가 다 順할 것인데, 어째서 노인은 秋冬의 時令만 행하고 少人은 春夏의 時令만 행하겠는가? 이는 아마 天의 四時로 人的 阴陽에 합하고 人的順逆으로 天의 四時에 相應하는 것 이므로 天地人이 參合하는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陽을 구하나 그 氣를 얻지 못하고 阴을 구하나 그 미미함을 살필 수 없으며 五部로써 五時의 氣를 살피지만 혹 隔絕되어 徵驗할 수 없다.”<sup>43)</sup>고 하였고, 高는 “이것은 寒厥到膝과 頭痛顱疾이 그 病이 지극히 위태롭되 그 이치가 지극히 精微하기 때문에 陽으로써 치료하나 진수를 얻지 못하고 阴으로써 치료하나 그 전체를 살피지 못한다. 膝과 頭에 있는 것과 五藏의 配屬부위는 멀리 떨어져서 徵驗할 수 없다.”<sup>44)</sup>고 하였다.

#### 11 若居曠野 若伏空室 縱縱乎屬 不滿日

王 · 馬 ·姚 · 白話解 등은 “病者가 心神이 흘어져 달아나서 마치 광야에 거하는 것 같아서 氣가 逆하니 痛症이 아직 그치지

41) ◎王 ·姚: 謂之陽은 乃脈似陰盛이오 謂之陰은 又脈似陽盛 故로 曰求陽不得하고 求陰不審也라 五部는 謂五藏之部요 隔 謂隔遠이오 無徵은 猶無可信驗이지라 然이나 求陽不得其熱하고 求陰不審是寒하니 五藏部分도 又隔遠而無可信驗이라 故로 曰求陽不得하고 求陰不審하니 五部隔無徵也라 夫如是者는 乃從氣久逆所作이니 非由陰陽寒熱之氣所爲也라 ○馬: 謂之陽證이나 又似夫陰하고 謂之陰證이나 又似夫陽하야 真求陽不得하고 求陰不審也요 五藏部分은 似隔遠而無可信驗하니 若是者는 乃氣逆日久所致也라 ○景岳: 厥之在人也에 謂其爲陽은 則本非陽盛이오 謂其爲陰은 則又非陰盛 故로 皆不可得이오 蓋以五藏隔絕하야 無徵可驗이라

42) ◎吳: 求之陽不得은 其逆上之故요 求之陰不得은 其寒厥之故라 五藏隔絕하야 無有形證可以徵驗이라 ◎黃: 方其氣上不下하야 頭痛顱疾하면 以爲陽多 而求陽不得은 其下無陽하도 以爲陰多 而求陰不審은 其上無陰하도 五藏之部가 懸隔無徵하야 不知是陽은 阴이라 ○白話解: 這種病은 在診斷上很難斷定하니 求之於陽이나 而下部虛하야 又不像陽證하고 求之於陰이나 而頭痛顱疾하야 又不象陰證이라 這是由於五臟隔絕하야 而無徵可見이라

43) ◎張: 夫老從上하고 少從下하니 此는 老幼百年之四時也요 陽從左하고 隔從右하니 此는 天地一歲之四時也요 朝則爲春 日中爲夏 日入爲秋 夜半爲冬하니 此는 一日之有四時也라 是는 老者도 一歲之中에 有春夏하고 一日之中에 有春秋하니 能順一歲一日之四時면 則百歲之氣가 皆順矣니 豈老者單行秋冬之令하고 而少者單行春夏耶아 此는 蓋以天之四時로 合人之陰陽하고 以人之順逆으로 應天之四時하니 是以로 不明天地人參合之道면 求陽而不得其氣하고 求陰而不能審其微하여 以五部而候五時之氣나 若隔絕而無徵驗矣라

44) ◎高: 此는 寒厥到膝과 頭痛顱疾이 其病極危로대 其理至微하야 但求陽以治之나 而不得其真하고 止求陰以治之나 而不審其全이라 在膝在頭와 五藏之部는 隔遠無徵이라

38) ◎張: 氣者는 一陽之氣也니 氣上不下하야 頭痛顱疾은 陽氣自下而直上于頭頂也라 應는 諷此下에 常有少者春夏生老者春夏死句하니 或簡脫耶아 按此二節은 論人之陰陽二氣가 自下而上하야 以應天之四時와 年之老少耳는 重在不下二字라 蓋一日之中과 一時之間과 陰陽出入과 上下循環에 有四時老少之氣하니 如上而不天下하면 則爲厥逆矣어음 豈果寒厥到膝에 而老者秋冬可生이리오是以로 下文所云이라 倪仲玉이 問曰 論陰氣에 口寒厥到膝이리하고 論陽氣에 口頭痛顱疾이리하니 是는 陽氣之直上于頭頂하고 而陰氣之至于膝耶아 由非也라 豈陰陽二氣가 上下相合는 猶天之寒暑往來에 四時之收藏生長이라 肌腠氣分은 為陽이오 經脈血分은 為陰이니 陰氣生于陽하고 陽氣生于陰이라 故로 曰所出爲井者는 陽氣從陰而出于脈外之處가 為井이요 所入爲合者는 陰氣從陽分而入于經脈之中하고 亦從井至合而與華血相合 故로 曰所入爲合이라하니라 蓋自井至合은 則五行之氣已周하고 復散行而上也라 訓厥寒厥之病이 始于肘膝이나 而不能回陽하면 則漸至頭痛顱疾하니 此는 陰陽血氣의 生始出入之要道니 望者不可不細加參考니라

39) ◎高: 若陽氣上하야 陰氣不下하면 則陽盛陰虛하니ya 致有頭痛顱疾之病矣라  
40) ◎姚: 氣血上行하면 則不惟足寒증이라 而且頭頸之上도 亦必生病이라

않은 것이고, 志意가 沈潛하여 마치 텅 빈 방안에 엎드려 있는 것 같아서 痛症이 몇었으나 또 다시 통증이 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緜綿히 동작과 호흡이 미미하게 유지되지만 마음으로 바라기를 혹시라도 오늘 하루를 채우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그 증상이 이와 같으니 또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sup>45)</sup>라고 하였고, 吳·景岳 등은 “마치 광야에 居하듯이 들리는 것이 없고 마치 빈방에 엎드려 있듯이 보이는 것이 없어서 病이 면면히 풀리지 않고 상태가 심하게 피폐되어 마치 하루를 넘기지 못할 것 같은 것이다.”<sup>46)</sup>고 하였고, 張은 “四時의 氣는 五方에서 生하고 사람의 形身은 神氣가 살고 있는 집이므로, 광야에 거처하고 있는 듯한 것은 四時之氣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빈방에 엎드려 있는 듯한 것은 사람의 陰陽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緜綿乎는 天道의 細微함을, 屬은 舍함을 뜻하니 天道의 精微함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陰陽變化에 합치시키고자 한다면 오히려 하루의 四時變化도 알지 못할텐데 어떻게 百歲의 陰陽變化를 알 수 있겠는가? 이러므로 少氣의 厥逆이 꿈으로 나타날 때 四時變化에 합치시키면 더욱더 그 미묘함의 극치를 보게 될 것이다.”<sup>47)</sup>라고 하였고, 高·黃 등은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아서 形狀이 없고, 마치 빈방에 엎드려 있는 것 같아서 神을 지키지 못하므로 면면히 한가닥의 숨만이 이어져 살기를 바라지만 아마 이 하루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sup>48)</sup>고 하였다.

#### 【直譯】

雷公이 여쭙기를, 陰陽의 氣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逆이고, 어떤 것이 順입니까?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陽氣는 左로부터 右로 가고, 陰氣는 右로부터 左로 가며, 노인의 氣는 上部로부터 下行하고, 젊은 사람의 氣는 下부로부터 上行한다. 그러므로 봄여름의 疾病에 陽이 나타나면 살고 陰이 나타나면 죽으니, 이와 반대로 가을겨울의 疾病에 陰이 나타나면 산다. 따라서 氣의 多少를 불문하고 氣가 逆하면 모두 厥證이 발생한다.

雷公이 여쭙기를, 氣가 有餘한 사람에게도 厥證이 발생합니까?

45) ○王·姚: 若居曠野는 言心神散越이오 若伏空室은 謂志意沈潛이니 散越是 以氣逆而痛甚未止요 沈潛은 以痛定而復恐再來也라 縱縣乎는 謂動息微也니 身雖縣縣乎且存이니 然이나 其心所屬望은 將不得終其盡日也라 故로 曰縣縣乎屬不滿日也라하니라 新校正에 云 按太素云 若伏空室爲陰陽之一이라하야 有此五字하니 疑此脫漏라하니라 ○馬: 痘者가 心神散越하야 若居曠野하야 以氣逆하니 痛猶未止요 志意沈潛하야 若伏空室하야 以痛定而復恐再來요 縱縣乎動息雖微나 而此心屬望이 若不能滿此一日也라 其證如此하니 不亦有可畏者哉이 ○白話解: 痘者가 就好像住在曠野하고 痘在空屋内一樣하야 心神散越하고 志意潛匿하니 久之則病體輕綿하야 而不能終其天年이라

46) ○吳: 若居曠野而無所聞하고 若伏空室而無所見하야 乃病則綿不解하거 势甚凋弊하야 若弗能終日者라 ○景岳: 若居廣野無所聞하고 若伏空室無所見하야 過病則縣縣不解하고 势甚凋敝하야 若弗能終其日者면 豈真陰陽之有餘者耶ا

47) ○張: 夫四時之氣는 生于五方하고 人之形身은 乃神氣之屋宇니 若居曠野는 不知四時之氣요 若伏空室은 不知人之陰陽也라 緜綿乎는 天道之細微也요 屬은 舍也니 不知天道之微하고 而欲合人之陰陽하면 尚不能滿一日之四時은 而況能知百歲之陰陽乎아 是以로 少氣之厥이 形之干夢에 而合于四時하면 更見其微妙之極也라

48) ○高: 人病此者는 若居曠野而形不存하고 若伏空室而神不守하야 緜綿乎一息之微가 屬望其生하나 若不能滿此一日矣라 ○黃: 若居曠野之中하고 若伏空室之內하야 縱縣乎氣息僅屬하야 似不滿日이라 此는 其陰陽離絕하고 氣血紛亂하야 莫可名言其證狀也라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陽氣가 上升하여 下降하지 않으면 寒厥이 발생하여 膝部에까지 파급되는데, 젊은 사람은 가을겨울에 죽고, 노인은 가을겨울이 되어도 산다. 氣가 上升하여 下降하지 않으면 頭痛 등의 嶺頂 질환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厥證은 陽證인 것 같지만 陽證인 근거를 얻을 수 없고, 陰證인 것 같지만 陰證인 근거를 살필 수 없다. 이는 五臟의 氣가 막힌 것으로 뚜렷한 徵候가 없어 마치 曠野에 서 있는 듯하고, 빈방에 갇힌 듯하여 근근히 살지만 하루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

#### 2) 제2절 五臟厥逆에 의한 夢

##### 【原文】

是以로 少氣<sup>1)</sup>之厥은 令人妄夢하며 其極至迷하니 三陽絕하며 三陰微 是爲少氣<sup>2)</sup>라 是以로 肺氣虛하면 則使人夢見(1)白物<sup>3)</sup>하며 見人斬血藉藉<sup>4)</sup>(2)하고 得其時則夢見兵戰하고 胃氣虛하면 則使人夢見舟船溺人하고 得其時則夢伏水中하며 若有畏恐하고 肝氣虛하면 則夢見菌香<sup>(3)生草</sup><sup>5)</sup>하고 得其時則夢伏樹下하야 不敢起하고 心氣虛하면 則夢救火陽物하고 得其時則夢燔灼<sup>(4)</sup>하고 脾氣虛하면 則夢飲食不足하고 得其時則夢築<sup>(5)</sup>垣蓋<sup>(6)</sup>屋하니 此皆五臟氣虛니 陽氣有餘하고 陰氣不足이라 合之五診<sup>(6)</sup>하야 調之陰陽은 以在經脈이라

##### 【校勘】

① 少氣: 語譯에 “《讀本》과 《吳本》에는 ‘少陰’으로 되어 있으나, ‘少陰’으로 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是爲少氣’와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라고 본다. 《類經》 권18에도 ‘少陰’으로 되어 있는데, 張氏가 어떻게 이를 살피지 못하였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校釋》에서도 《吳注素問》 · 《素問注證發微》 · 《類經》 18권에 모두 ‘少陰’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② 三陽絕 三陰微 是爲少氣: 《新校正》에 “《太素》에 ‘至陽絕陰 是爲少氣’라고 되어 있다.”고 하였다.

③ 則使人夢見白物: 《千金》 권17에는 ‘則夢見白物’로 되어 있다.

④ 藉藉: 《類經》 18권 ‘疾病類’와 《直解》에도 ‘籍籍’으로 되어 있으며, 語譯에 “《吳本》과 《明抄本》에는 ‘籍籍’으로 되어 있는데, ‘藉藉’는 ‘籍籍’와 의미가 통한다.”고 하였다.

⑤ 菌香生草: 《新校正》에 《全元起本》에는 ‘菌香是桂’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校釋》에서는 《脈經》 권6제1과 《千金》 권11제1에 모두 ‘園苑生草’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⑥ 五診: 《張馬合編》에는 ‘五胗’으로 되어 있다.

##### 【字句解】

① 見: 顯也 나타날 현. 露也 드러날 현. 나타날 현

② 藉藉: 어지럽고 무질서한 모양. 藉: 祭, 깔자

③ 菌香: 草名 又肉桂之一, 육계의 한 종류. 菌: 地蕈, 버섯균

④ 燜灼: 불에 굽는 일

⑤ 築: 棚也, 다질죽. 積重, 쌍을 죽

⑥ 蓋: 掩也, 가릴개. 苫蓋, 이엉덮을합

##### 【較註】

① 少氣之厥 令人妄夢 其極至迷

王·高·今釋 등은 “氣가 적을 때에 厥逆이 발생하면 망령된 꿈을 꾸게 하고, 그 厥逆이 아주 심하면 정신을 지극히 혼미하게 만든다.”<sup>49)</sup>고 하였고, 馬는 “이것은 陰氣가 不足한 사람이

熱厥이 되었을 때에 五臟의 망령된 꿈이 상징으로 나타남을 말한 것이다. 上文에서 有餘한 경우에 厥症이 된다고 한 것은 阴氣가 有餘한 것이므로 마땅히 寒厥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少陰의厥이라고 한 것은 阴氣가 不足한 것이므로 마땅히 热厥이 되는 것이다. 오직 그 阴氣가 虛함으로 인하여 망령되어 훈미한 꿈을 꾸게 한다.”<sup>50)</sup>고 하였으나, 吳·景岳·白話解 등은 “手少陰은 心이니 心은 陽을 주관하여 神을 간직하며 足少陰은 腎이니 腎은 陰을 주관하여 精을 간직하므로 少陰이 厥逆하면 心腎이 不交하여 精神이 흩어져 달아나기 때문에 망령된 꿈을 꾸는 것이고, 만약 그 不交가 극도에 이르면 사람을 昏迷하게 만든다.”<sup>51)</sup>고 하였으며, 張·姚·黃 등은 “앞에는 多氣로 인한厥을 말한 것이고 여기는 少氣로 인한厥症을 말한 것이니, 少氣도厥症이 되니 모두 有餘한 경우만厥症이 되는 것은 아니다. 氣가 부족한 사람은 陰陽이 모두 虛하여 망령된 꿈을 많이 꾸는 것이다. 만약 虛함이 심하면 망령된 꿈을 꿀뿐 아니라昏迷하여人事不省에까지 이른다.”<sup>52)</sup>고 하였다.

#### ② 三陽絕 三陰微 是爲少氣

王·姚·語譯·今釋 등은 “三陽經의 脈이 懸絕하게 나타나고, 三陰經의 脉이 細微하게 나타나면 이는 氣虛하여厥症이 된다.”<sup>53)</sup>고 하였고, 馬·張 등은 “絶이라는 것은 陽이 阴과 和合하지 못하는 것이다. 五臟의 阴氣가 陽氣와 和合하지 못하면 三陰이 적어져 五臟의 氣가 적어지게 된다.”<sup>54)</sup>고 하였으며, 吳·景岳·高·白話解 등은 “三陽이 廉絕하면 陰이 상부에서 줄어들고 三陰이 微弱하면 陽이 하부에서 줄어들어 陰陽이 서로 生化하지 못하기 때문에 少氣하여 숨쉬기가 힘들게 된다.”<sup>55)</sup>고 하였고, 黃

은 “求陽不得이 三陽이 絶한 것이고, 求陰不審이 三陰이 微한 것 이므로, 陽이 懸絕하고 陰이 微細하다는 것은 少氣한 것인데 어떻게 有餘라 할 수 있겠는가?”<sup>56)</sup>라고 하였다.

#### ③ 肺氣虛則使人夢見白物 見人斬血藉藉

王·吳·語譯 등은 “白物은 金의 色을 형상한 것이고, 斬하는 것은 金의 用이고, 藉藉는 꿈에 죽어 있는 모습을 꾸는 것이다.”<sup>57)</sup>고 하였고, 馬·景岳·李·張 등은 “이 아래 구절은 五臟의 陰虛로 인해 생긴 꿈의 징조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肺虛한 자가 白物을 꿈꾸는 것은 金의 색이 白色이기 때문이고, 斬하는 것은 金의 用이기 때문이고, 虛한 자는 반드시 무서워하므로 사람이 참사되어 流血이 낭자한 것은 놀래고 두려워함이 많기 때문이다. 藉藉은 猛藉함이다.”<sup>58)</sup>고 하였으며, 姚는 “白色은 金의 色이고, 斬하는 것은 金의 用이다. 생각하건대 藉藉(=借借)는 傷害를 당하여 땅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다. 王冰의 注에 ‘死狀’이라고 하였는데, 잘못된 것이다.”<sup>59)</sup>고 하였다.

#### ④ 得其時則夢見兵戰

王·吳·景岳·李·張·姚 등은 “得其時는 秋令의 때를 得하였다는 말하니 꿈에 병사들이 싸우는 것이 보이는 것은 그 氣의 도움을 얻어서 金氣가 왕성한 것이다.”<sup>60)</sup>고 하였으나, 馬는 “만약 가을이 되어 金氣運이 왕성해져 肺를 도와주면 쇠약함이 오히려甚하지 않아야 하거늘, 꿈에 병사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보이는 것은 그 肺氣가 실로 불안한 것이다.”<sup>61)</sup>고 하였고, 高는 “得氣時라는 것은 金氣가 장차 회복된다는 것이고, 병사들이 싸우는 것은 肺氣가 伸張되려는 것이다.”<sup>62)</sup>고 하였다.

#### ⑤ 腎氣虛則使人夢見舟船溺人

王·馬·吳·景岳·李·張·高·白話解 등은 “腎은 水를

19) ○王: 氣之少에 有厥逆하면 則令人妄爲夢寐하고 其厥之盛極하면 則令人夢至迷惑이라 ○高: 少氣之厥은 猶之令人妄夢하고 推其極而至于昏迷라 ○今釋: 氣不足而致厥逆면 則使人惡夢紛紛하고 其至神志迷惑이라 ○語譯: 氣虛의 妥思은 乃使人胡亂作夢하고 達到極端 則夢多離奇迷惑이라

50) ○馬: 此는 陰氣不足者가 為熱厥하야 而五臟의 妥思이 為徵也라 上文言有餘者爲厥은 乃陰氣有餘니 當爲寒厥이오. 此言少陰之厥은 乃陰氣不足이니 當爲熱厥이라. 唯其陰氣之虛가 令人妄夢述마

51) ○吳: 少陰之氣에 少有厥逆하면 則令人夢이라 若厥氣極盛하면 則令人迷惑昏昧라 ○景岳: 手少陰은 心이니 心主陽하야 其藏神하마니 足少陰은 腎이니 肾主陰하야 其藏精하니是以로 少陰厥逆하면 則心腎不交하야 而精神散越 故此 乃妄夢이오. 若其至極하면 則令人迷惑昏昧也라 ○白話解: 人的生氣는 資源于腎而交于心이니 氣少 則心腎不相交하고 心腎不交 則精神散越 故此 使人妄夢하고 若厥重時면 則至於迷惑昏昧라

52) ○張: 少氣之厥은 氣虛而上逆이요 夢者는 魂魄肺氣之所遊蕩이니 是以足上行其極 而至迷惑라述者는 逐而迷惑라夫有餘之厥은 自下而上하고 少氣之厥은 令人妄夢而合四時하니 是은 四時之氣가 合五臟之神이라 五臟之陰陽이 下行而足跗면 陽氣는 起于足五指之表하고 陰氣는 起于足五指之裏하야 術足上行하야 見于經脈而應于四時라 ○姚: 前은 言多氣派이오 此는 曰少氣之厥이니 少氣亦厥이라 非虛有餘者厥이라 少氣之人은 陰陽并虛하여 莫多誕妄이라 若厥之極하면 則不但妄夢이라 而且至多迷惑不省人事矣라 ○黃: 少氣者는 陰陽俱虧하니 二氣不交면 最易發厥이라 少氣之厥은 微者는 神魂飛蕩하야 使人妄夢하고 其極은 則陰陽逆亂하야 至於迷惑라 厥逆無知者는 氣亂而神迷也라

53) ○王·語譯: 三陽之脈懸絕하고 三陰之診細微하면 是爲少氣之候也라 新校正에 云 按太素云컨대 三陽絕인이 是爲少氣라하니라 ○姚: 絶은 謂懸絕이오 微는 謂微細리 太素에 作至陽絕하니 譬矣라 ○今釋: 三陽之脈이 懸絕하고 三陰之脈이 細微하면 這就是 氣虛而厥이라

54) ○馬: 蓋以三陽之氣阻絕하고 三陰之氣甚微故也라 是故五臟者는 陰이니 陰氣虛則妄夢形이라 ○張: 絶者는 陽不與陰合하니 五臟之陰氣가 不得陽氣以和之면 則三陰微而五臟之氣少矣라

55) ○吳: 絶는 謂陰陽無氣也요 微는 謂微茫無氣也라 陰陽不相流貫하니 是爲少氣不足以息이라 ○景岳: 三陽厥絕하면 則陰虧於上하고 三陰微弱하면 則陽虧於下하야 陰陽不相生化 故五 少氣不足以息이라 ○高: 此는

三陽之氣가 不能下交하니 是三陽絕也요 三陰之氣가 不能環復하니 是三陰微也니 陽絕陰微는 是爲少氣之厥이오 非有餘之謂이라 ○白話解: 其原因是 是三陽隔絕 則陰氣虧損於上하고 三陽微弱 則陽氣衰敗於下하야 陰陽不能相輔生焉하니 所以氣少라

56) ○黃: 夫求陽不得이 是三陽絕也요 求陰不審이 是三陰微也니 陽絕陰微는 是爲少氣이니 何謂有餘耶라

57) ○白物은 是象金之色이요 斬者는 金之用이요 藉藉는 夢死狀也라 ○吳: 金色白故도 夢白物이오 金主殺伐 故로 夢斷血兵戰이라 藉藉는 槊尸狀이라 ○語譯: 肺氣虛하면 就會夢見白色東西하고 或夢見有人被殺流血하야 尸體交橫이라

58) ○馬: 如肺氣虛하면 則肺屬金하니 夢見白物者는 金之色이요 見人斬血藉藉者는 金之用이요 藉藉는 衆多也라 ○景岳: 此下는 言五臟陰虛之夢兆也라 肺虛者가 夢白物은 金色白이요 斬者는 金之用이요 虛者必怯 故로 見人斬血藉藉는 多驚惕也라 ○李: 金色本白 故로 夢白物이오 斬者는 金之用이요 虛者는 多畏怯 故로 見斬血藉藉也라 ○張: 白物은 金之象이요 斬血은 刑傷이요 藉藉는 猛藉이라 ○高: 承上文妄夢至迷之意하야 伸言五臟氣虛 則有五臟之夢也라 見夢白物과 斬血藉藉은 肺氣虛矣요 藉藉은 音習이라 ○白話解: 肺氣虛的時候면 則令人夢見白色器物하니 這是因為肺屬金而色白的緣故이요 或夢見人斬血狼藉하니 這是因為肺主肅殺之氣의緣故이로 ○今釋: 肺氣虛하면 則使人夢見白色的東西하고 夢見殺人血肉狼藉하라

59) ○姚: 白은 金之色이오. 斬者는 金之用이요 藉藉(=借借)는 被傷借地이요 土注에 作死狀하니 誤矣라

60) ○王·姚: 得其時는 謂秋三月이라 金은 為兵革 故로 夢見兵戰也라 ○吳: 時는 秋時也라 ○景岳: 得金王之時也라 ○李: 得其時는 得金王之時也라 ○張: 得其時는 謂得其秋令之時니 則夢見兵戰은 盖得時氣之助而金氣盛也라 ○姚: 此는 言五臟虛夢이니 蓋因上言少氣則妄夢이오 而因言 五臟氣虛도 亦多夢이니 非謂氣厥者其夢如是也라

61) ○馬: 若得之時하야 而金旺助肺하면 則衰猶未甚이어늘 夢見以兵相戰은 其藏氣實不全也라

62) ○高: 得氣時者는 氣將復也요 兵戰은 則肺氣將伸矣라

주관하므로 腎氣가 不足하면 꿈에 舟船이나 褐溺死한 사람이 보이게 된다.”<sup>63)</sup>고 하였고, 今釋은 “腎氣가 虛하면 꿈에 舟船이 전복하고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이 보인다.”<sup>64)</sup>고 하였다.

#### ⑥ 得其時則夢伏水中 若有畏恐

王·吳·景岳·李·張·白話解 등은 “겨울철의 水氣를 얻었기 때문에 水中에 업드려 있는 꿈을 꾸는 것이다. 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腎志가 虚하기 때문이다.”<sup>65)</sup>고 하였으나, 馬는 “만약 겨울철이 되어서 水氣가 腎을 도우면 쇠약함이 오히려 심해지지 않을 것이니 水中에 업드려 있는 꿈을 꾸고 褐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은 그 藏氣가 실로 불안한 것이다.”<sup>66)</sup>고 하였고, 高는 “水中에 업드려서 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腎氣가伸張되려는 것이다.”<sup>67)</sup>고 하였다.

#### ⑦ 肝氣虛則夢見菌香生草

王·馬·吳·景岳·高 등은 “菌香草生은 草木의 종류이고 肝은 草木과 상응하기 때문에 꿈에 나타난 것이다. 新校正에 이르길 全元起本에 菌香은 계수나무라고 한 것을 살펴보라고 하였다.”<sup>68)</sup>고 하였고, 張·白話解·今釋 등은 “肝主木하므로 만약 肝氣가不足하면 꿈에 菌香(버섯)이나 조목이 나타나니 菌香과 조목이 모두 木의 부류이기 때문이다. 菌香은 버섯의 작은 것으로 향기가 있으므로 菌香이라 부른 것이다.”<sup>69)</sup>고 하였다.

#### ⑧ 得其時則夢伏樹下 不敢起

王·吳·姚 등은 “時は 봄 석달이다.”<sup>70)</sup>고 하였고, 馬·景岳·張·白話解 등은 “꿈에 나무 아래에서 엎드려 있는 것은 봄의 木氣를 얻었기 때문이다. 감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비록 春氣의 도움을 얻었으나 또한 능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sup>71)</sup>고 하였으며, 高는 “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肝

氣가 장차伸張되려는 것이다.”<sup>72)</sup>고 하였다.

#### ⑨ 心氣虛則夢救火陽物

王·馬·吳·景岳·高 등은 “心氣가虛하면 心은 火에 속하니 꿈에 불을 구하거나 陽에 속하는 물건이 나타나는 것은 火의 形象이다.”<sup>73)</sup>고 하였고, 張·白話解·語譯 등은 “불을 구하는 것은 心氣가虛하기 때문이다. 陽物은 龍이니 천둥과 번개가 번쩍이는 것이다.”<sup>74)</sup>고 하였다.

#### ⑩ 得其時則夢燔灼

王·吳·景岳 등은 “時は 여름 석달이다.”<sup>75)</sup>고 하였고, 馬는 “만약 여름철을 만나서 火가 心을 도우면 쇠약함이 오히려 심하지 않을 것이므로 꿈에 불을 피우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 藏氣가 실로 불안한 것이다.”<sup>76)</sup>고 하였으며, 張은 “여름철 時氣의 도움을 얻으면 君火와 相火가 함께 炎上하므로 불사르는 꿈을 꾸는 것이다. 倪仲玉이 ‘灼은 밝게 빛나는 모양이니 君火가 되고, 불사르고 굽는 것을 燔이라고 하니 땅에 있는 火(相火)가 된다’고 하였다.”<sup>77)</sup>고 하였고, 高는 “燔灼하는 것은 心氣가 장차伸張되려는 것이다.”<sup>78)</sup>고 하였다.

#### ⑪ 脾氣虛則夢飲食不足

王·馬·吳·景岳·張·高·白話解 등은 “脾는 土에 屬하여 水穀運化를 주관하는데, 脾氣가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이 부족한 꿈을 꾸게 한다.”<sup>79)</sup>고 하였다.

#### ⑫ 得其時則夢築垣蓋屋

王·馬·吳·景岳·張·姚·高 등은 “‘得其時’는 辰戌丑未月은 각기 18일동안 土氣가 왕성한 것을 말한다. 築垣蓋屋은 모두 土氣의 쓰임이다.”<sup>80)</sup>고 하였다.

#### ⑬ 此皆五藏氣虛 陽氣有餘 陰氣不足

王·馬·吳·景岳·張·姚·高 등은 “이것은 모두 五臟의 氣가虛하여 陽氣는 有餘하고, 陰氣는 不足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꿈을 꾸는 厥證이 생긴다.”<sup>81)</sup>고 하였다.

72) ◉高: 伏樹下不敎起는 肝氣를伸矣라

73) ○王·姚: 心合火 故로 夢之요 陽物도 亦火之類라 ◉馬: 心氣虛하면 則 心屬火하니 夢見救火屬陽等物은 火之象也라 ○吳: 心主火 故로 夢火라 ○景岳: 心合火也요 陽物은 卽屬火之類라 ○李: 心合火하니 陽物은 卽火之屬也라 ○高: 救火陽物은 心虛夢也라

74) ◉張: 救火는 心氣虛也라 陽物은 龍也니 乃龍雷之火游行也라 ○白話解: 心主火하니 心氣不足하면 則令人夢見救火 or 龍雷等 陽性事物이라 ○語譯: 心氣虛하면 就會夢見救火 and 見到雷電이라

75) ○王: 夏三月也라 ○吳: 時는 夏時也라 ○景岳: 得火王之時也라 ○李: 得火旺之令하면 夢火益大也라

76) ○馬: 若得夏之時하야 而火來助心하면 衰猶未甚하니 則夢見燔灼은 其藏氣實不安也라

77) ○張: 得其時氣之助하면 則君相二火並炎 故로 夢燔灼이라 倪仲玉이 曰 燔은 乃昭明之象이니 君火也요 燔灸曰燔이라 在地之火也라하니라

78) ◉高: 燔灼은 心氣將伸矣라

79) ○王: 脾納水穀 故로 夢飲食不足이라 ○馬: 脾氣虛하면 則脾屬土하니 夢見飲食不足은 內虛之象이니 ○吳: 脾主味하고 爲倉廩之官 故로 夢飲食垣蓋屋이라 ○景岳: 倉廩空虛 故로 欲得飲食이라 ○李: 倉廩空虛 故로 欲飲食이라 ○張: 脾氣虛則夢取 故로 爲飲食不足이라 ○高: 飲食不足은 脾虛夢也라 ○姚: 脾主水穀하니 虛則不知堅足也라 ○白話解: 脾屬土而主運化水穀하니 脾氣不足 故로 使人夢見飲食不足이라

80) ○王: 得其時는 調辰戌丑未之月이 各王十八日이라 築垣蓋屋은 皆土之用이라 ○馬: 如得四季之時하니 而土來助脾하면 衰猶未甚하니 則夢築垣蓋屋은 其藏氣實不安也라 ○吳: 時는 季月也라 ○景岳: 得土王之時也라 ○張: 夢築垣蓋屋은 得土令之土氣也라 ○姚: 得其時는 調辰戌丑未之月이 各王十八日이라 築垣蓋屋은 皆土之用이라 ○高: 築垣蓋屋은 脾氣將升矣라

## ⑩ 合之五診 調之陰陽 以在經脈

王·馬·景岳·張·高 등은 “五診하는 法을 따라 진찰하면 五臟을 診察할 수 있고, 陰陽을 조절하면 六經이 조화롭게 된다. ‘以在經脈’은 《靈樞·經脈篇》에 뜻이 나와 있다는 것이다.”<sup>82)</sup>고 하였다.

### 【直譯】

그러므로 氣가 虛하여 發생한 厥證은 虛妄한 꿈을 꾸고, 極에 달하면 昏迷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三陽脈이 끊어지려 하고, 三陰脈이 微細한 것은 氣가 虛한 것이다. 그러므로 肺氣가 虛하면 흰색의 물건이 보이거나 사람이 참살되어 유혈이 낭자한 꿈을 꾸고, 王성할 때를 만나면 전쟁하는 꿈을 꾼다. 腎氣가 虚하면 배나 사람이 물에 빠지는 꿈을 꾸고, 王성할 때를 만나면 물속에 潛伏하는 꿈을 꾸거나, 두려울 만한 꿈을 꾼다. 肝氣가 虚하면 酒香, 生草의 꿈을 꾸며, 王성할 때를 만나면 나무 아래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는 꿈을 꾼다. 心氣가 虚하면 꿈에 불같은 陽類의 물건을 얻는 꿈을 꾸고, 王성할 때를 만나면 큰 불길이 타오르는 꿈을 꾼다. 脾氣가 虚하면 음식이 不足한 꿈을 꾸고, 王성할 때를 만나면 담을 쌓고 지붕을 있는 꿈을 꾼다. 이것은 모두 五臟의 氣가 虚한 때문이니, 陽氣가 남아돌고 陰氣가 부족한 것이므로 외부에 나타나는 증상을 근거로 五臟을 診斷하여 陰陽을 調和시켜야 한다. 그 방법은 〈脈經篇〉에 기재되어 있다.

## 2. 제2장 診有十度 및 診有大方

### 1) 제1절 診有十度

#### 【原文】

診有十度하니 度人脈度 藏度 肉度 筋度 愈度하야 陰陽氣盡하면 人病自具라 脈動無常하면 散陰頗(1)陽이나 脈脫不具엔 診無常行이오 診必上下하야 度民君卿이라 受師不卒(2)하야 使術不明하야 不察逆從이 是爲妄行이라 持雌失雄하고 葉陰附陽(1)하야 不知並合하니 診故不明이오 傳之後世에 反論自章(3)이라

#### 【校勘】

葉陰附陽: 《張馬合編》에는 ‘葉陽附陰’으로 되어 있다.

#### 【字句解】

① 頗: 偏頗不正, 비뚤어질파. 僅可, 자못파

② 卒: 軍伍, 항오. 終盡, 마침줄

③ 章: 文彩, 물채장. 表也, 표현할장: 章程, 條也, 장정장. 文也, 글장. 明也, 밝을장.

#### 【較註】

81) ○王: 肺者陽氣요 嗓者陰氣라 ○馬: 此는 肺者五臟氣虛하야 陽氣有餘하고 陰氣不足하니 所以有是夢而或是厥也라 ○吳: 凡人陽氣不足하고 陰氣有餘하면 則當其而麻어니와 若陽氣有餘하고 陰氣不足하면 則當夕而夢이라 ○景岳: 五臟氣虛는 則陰不足이니 陰氣不足하면 則肅陽獨浮 故云陽氣有餘나 陰氣不足는 其虛證可知라 所以為厥為夢者는 皆陽不附陰之所致라 ○張: 凡此五臟氣虛는 乃陽氣有餘하고 陰氣不足이니 ○姚: 肺者陽氣요 膽者陰氣라 ○高: 此는 皆五臟氣虛而形諸夢이니 乃陽氣有餘하고 陰氣不足이라

82) ○王: 靈樞經에 備有調陰陽合五診 故로 引之曰以在經脈이니 經脈은 則 靈樞之篇目也라 ○馬: 常合五診之法하고 調之陰陽之分하야 以察經脈之度하야 常可以治此證耳라 ○景岳: 合之五診하야 則五臟을 可察이오 調之陰陽하야 則六經을 可和라 以在經脈은 謂義如靈樞之經脈篇也라 ○張: 常合之五診하야 調之陰陽호대 以在經脈으로 而合于四時라 ○高: 可以合之五診하야 調之陰陽호대 以察周身之經脈이라 在는 察也라

### ① 診有十度 度人脈度 藏度 肉度 筋度 愈度

王·馬·吳·景岳 등은 “診察하는 法이 비록 10가지나 합하면 결국 陰陽뿐이다. ‘十度’는 脈, 臟, 肉, 筋, 愈를 말하는 것으로 5가지지만 左右로 하여 10가지가 된다. 脈度는 ‘經脈’·‘脈度’等篇에 나와 있고, 臟度는 ‘本藏’·‘腸胃’·‘平人絕穀’等篇에 나와 있고, 肉度는 ‘衛氣失常’等篇에 나와 있고, 筋度는 ‘經筋篇’에 나와 있고, 愈度는 ‘氣府’·‘氣穴’·‘本輸’等篇에 나와 있다.”<sup>83)</sup>고 하였다.

- 考察 : ‘十度’에 대하여 王·馬·吳·景岳 등은 ‘脈度·臟度·肉度·筋度·愈度×2(左右)’로 보았으나, 張·高 등은 원문을 ‘診有十度 度人脈 度藏 度肉 度筋 度愈 度陰陽氣盡 度民君卿’으로 끊어 읽어 ‘十度’는 ‘人脈·藏·肉·筋·愈·陰陽氣盡·民·君·卿’<sup>84)</sup>이라 하였다. 그러나 民·君·卿을 살핀다는 뜻은 그 사람의 지위를 살피는 내용으로 포괄되므로 따로 셋으로 나누는 주장은 따르기 어렵다.

### ② 陰陽氣盡 人病自具

王·馬·景岳·張·黃 등은 “診察하는데 陰陽의 理致가 다 갖추어지면 사람의 病은 저절로 알 수가 있다.”<sup>85)</sup>고 하였고, 吳·姚 등은 “‘盡’은 痘損이요, ‘具’는 見의 뜻으로 陰陽의 氣가 다하면 病이 五度에 나타난다는 뜻이다.”<sup>86)</sup>고 하였다.

- 考察 : 陰陽이 이미 다하였으면 그 병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病이 저절로 갖추어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

83) ○王: 度에 各有其二 故로 二五爲十度也라 ○馬: 此는 診有十度之法 이어늘 而失其法者은 後遺身咎也라 診本五度나 而此曰十度는 蓋脈藏 肉筋愈左右相同하니 則謂之十度도 亦可也라 有脈度 故로 靈樞에 有經脈 脈度等篇하고 有藏度 故로 靈樞에 有本藏 腸胃 平人絕穀等篇하고 有肉度 故로 靈樞에 有衛氣失常等篇하고 有筋度 故로 靈樞에 有經筋篇하고 有愈度 故로 素問에 有氣府 氣穴이며 靈樞에 有本輸等篇이라 ○吳: 度之度은 入聲이오 餘去聲이라 度는 量也라 十度는 五度各二也라 ○景岳: 診法이 雖有十度나 而總不乎陰陽也라 十度는 診脈藏肉筋愈니 是爲五度나 左右相同에 各有其二하니 二五爲十也라 脈度자는 如經脈脈度等篇이 是也요 臟度는 如本藏腸胃平人絕穀等篇이 是也요 肉度는 如衛氣失常等篇이 是也요 筋度는 如經筋篇이 是也요 愈度는 如氣府氣穴本輸等篇이 是也라 度는 數也라

84) ○張: 此는 診持診之道가 四時五診之外에 而更有十度也라 度는 度量이니 十度는 度人脈 度藏 度肉 度筋 度愈 度陰陽氣 度上下 度民 度君 度卿이니 度人脈자는 度人合天地而成三部九候也라 度藏자는 度五藏之奇恒逆從이니 度肉자는 度人之形與氣相任則壽하고 不相任則夭하며 皮與肉相果則壽하고 不相果則夭니 如病而形肉脫者死라 度筋자는 手足三陰三陽之筋이 각有所起하고 經於形身하니 病則宜用燔鍼劫刺히도 度愈자는 五藏五俞 五五二十五俞와 六腑六俞 六六三十六俞와 經脈十二와 絡脈十五니 凡二十七氣가 以上下所出爲井이오 所溜爲榮이오 所注爲俞요 所行爲經이오 所入爲合이니 二十七氣所行에 皆在五俞라 ○直解: 上文은 五藏氣虛에 合之五診이오 此는 診五診之中에 有十度也라 度은 量이니 十度는 一曰度人이나 人之貧富와 性之緩急也요 二曰度脈이니 脈之大小와 至之遲數也요 三曰度藏이나 藏之虛實과 氣之逆也요 四曰度肉이나 肉之肥瘦과 體之盛衰也요 五曰度筋이나 筋之強弱과 力之多寡也요 六曰度俞이니 度俞藏俞와 上下出入也요 七曰度陰陽氣盡이니 憂陰而初陽生하고 陽盡而一陰始也요 八曰度民이요 九曰度君이요 九曰度卿이요 皆人也이로대 民不得同于卿하고 齊不得同于君하야 就其心志而揆度之하니 此五診之有十度也라

85) ○王: 診備全陰陽虛盛之理면 則人病은 自具知之라 ○馬: 是는 皆各經陰陽之氣가 人身諸病에 無所不具라 ○景岳: 凡此十度者는 人身陰陽之理가 盡之矣라 故로 人之疾病도 亦無不具見於此라 ○張: 度陰陽氣者の는 度藏府表裏陰陽之氣라 盡者는 調慮此法而人病自具也라 ○黃: 陰陽氣 盡하면 人病自具는 形影相應하야 無所逃也라

86) ○吳: 盡은 痘損이니 見은 見也니 謂顯于五度也라 ○姚: 陰陽者는 人身之真氣니 氣盡則病은 自然之理也라 然이니 所謂氣盡者는 非必竭盡而無有也요 偏虛偏盛이 皆能為害라

다. 그리고 이 단락은 診法에 대하여 論하고 있으므로 문맥상 王 등의 說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③ 脈動無常 散陰頤陽 脈脫不具 診無常行 診必上下 度民君卿

王·吳·景岳·張·高 등은 “脈動에 일정한 數가 없는 것은 隱이 흩어졌으나 陽이 오히려 調理되는 듯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만약 脈診만으로 온전히 병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診察만 하면 안되고, 반드시 그 사람의 지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調養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sup>87)</sup>고 하였다.

④ 受師不卒 使術不明 不察逆從 是爲妄行 持雌失雄 異陰附陽  
不知並合 診故不明

馬·景岳·張·高·黃 등은 “지금의 의사들은 스승에게 수업을 받되 다 미치지 못하고, 의술을 물려주나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여 逆從을 살피지 못하고, 雌雄을 지키지 못하고, 隱陽을 변별하지 못하고, 幷合함을 알지 못하니 진찰하는데 밝지 못하다”<sup>88)</sup>고 하였다.

⑤ 傳之後世 反論自章

王·吳·景岳·張·高·黃 등은 “理致도 잘 모르고 망령되어 후대에 傳하여 주면 그 잘못에 대한 反論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sup>89)</sup>고 하였다.

87) ◉王: 脈動無常者는 是陰散而陽頤調理也라 若脈診脫略而不具備者는 無以常行之診也오 察候之에 則當度量民及君卿三者는 調養之殊異爾라 何者오 疾樂苦分이 不同其秩故也일사라 ○吳: 度은 入聲이라 脈動無常者는 脈來不常其狀也라 頤는 跛同이니 散陰頤陽者는 隱陽散亂偏頤이라 脈脫不具者는 脈或不顯也라 診無常行者는 法不拘于一途也라 故로 又示之以辨上下尊卑勞佚也라 ○景岳: 脈動無常은 言脈無常體也라 散陰頤陽은 言陰氣散失者가 脈頤類陽也라 何也오 如仲景曰 若脈浮大者氣實血虛也와 叔和曰 諸浮脈無根者皆死와 又曰 有表無裏者死리라니 謂眞陰散而孤陽在라 脈頤似陽而無根者는 非眞陽之脈也니 此는 其脈有所脫而陰陽不全具矣라 診此者는 有不可以陰陽之常法으로 行也니 蓋謂其當順耳라 貧賤尊卑에 勞逸有異하고 脊梁藜藿에 氣質不同 故로 度當民君卿에 分別上下하라 以爲診이라 ○張: 脈動無常하니 散在陰而又頤在陽하면 此病在精志니 是以로 隱陽莫測이라 脈脫不具면 必問而後得之라 度上下者는 度氣之通于天과 痘之變化也라 度民者는 度其督富後貧과 索榮勞苦也라 度君者는 度王公大人的 驕恣縱欲이니 禁之則逆其志하고 順之則加其病하니 當告之以其敗하고 語之以其善하며 導之以其所便하고 開之以其所苦니 人之情이 置不惡而樂生하니 惡有不聽者乎아 度尙者는 度其督富後賤이니 封君敗傷하면 故貴脫勢나 反欲侯土라 ○高: 上文은 診有十度이오 此는 言診無常行하니 難于度也라 診脈者는 診病也라 今人病自具나 脈動無常하면 有是病則有是脈이 理之常也어늘病具而不見于脈하니 是謂無常이라 無常者는 痘散于陰而脈頤陽하고 脈虛于內而病不具리 脄은 猶虛也라 是診無常行하야 診必因上以知下니不但十度爲然也라

88) ◉馬: 今醫工은 受師不終其業하고 傳術不明其理하야 不察逆從하며 不守雌雄하며 不辨陰陽하야 不知并合하니 診之所以不明也라 ○景岳: 痛은 盡也라 雜痛은 卽陰陽之義니 生氣通天論에 曰 隱陽離決하면 精神乃絕이라 故로 凡善診者는 見其陰虛而必察其陽하고 見其陽虛而必察其陰이라 使不知陰陽逆從之理와 幷合之妙면 是는 真庸庸者耳니 診焉得明이리오 ○張: 是以로 受師不卒하면 使術不明하야 不察逆從하니 是爲妄行이라 持雌失雄하고 異陰附陽하야 不知并合하니 診故不明이오 ○高: 此下는 謂陰陽持之遺도니 所以方其盛衰也라 受師不卒하면 則謬言爲道하고 使術不明하라 則妄作雜術하고 不卒不明하라 不能察陰陽之逆從하니 是爲妄行이라 妄行者는 但持其雌而失去雄하고 偏棄其陰而附其陽하야 不知陰陽之并合하니 診故不明이라 ○黃: 受業於師나 不能卒業하면 使術不明하야 不察逆從하니 是爲妄行이라 妄行而無徵驗하면 將示畏于庶民라 緣其持雌而失雄하고 異陰而附陽하야 不知并合而參觀하면 診故不明이라

89) ◉王: 痘은 露也라 以不明而授與人하면 反古之迹이 自然章露也라 ○吳: 以不明而傳于後하면 後之明者가 必反其論하야 而立言自章也라 ○景岳: 理既不明호대 而妄傳後世하면 則其謬言反論이 終必自章露也라 ○張: 傳之後世면 反論自章이라 雜痛은 謂陰陽之配合이라 幷合은 血氣之并合이라 ○高: 不明而診하면 道無可傳하고 理無可通이라 故로 傳之後世에

【直譯】

診法에는 五度가 있어 사람을 診察하니 脈度·臟度·肉度·俞度가 그것이다. 隱陽의 理致를 다 알면 사람의 병은 다 알 수 있다. 脈動은 變化無常하여 隱이 흩어졌으나 陽은 오히려 조절된 듯하는 경우가 있어 脈象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診法은 고정된 규칙이 없다. 診察時 반드시 환자 신분의 高下를 살펴야 하니, 즉 평민인지 임금인지 公卿大夫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스승에게 傳受받는 것을 미처 못 마쳐 의술이 밝지 못하면 질병의 順逆를 분별하지 못하니 이것은 망령된 행동이다. 雌만고집하여 雄은 놓치며, 隱을 버리고 陽만 집착하여 合併할 줄 모르니 診察에 밝을 수가 없다. 그러한 醫術이 후세에 전해지면 반드시 反論이 나타날 것이다.

【原文】

至陰이 虛하면 天氣絕하고 至陽이 盛하면 地氣不足이라 隱陽並交는 至人之所行이니 隱陽並交者는 陽氣先至하고 隱氣後至라 是以로 聖人持診之道는 先後陰陽而持之라 奇恒之勢는 乃六十首니 診合微之事하며 追(1)陰陽之變하며 章五中之情이라 其中之論은 取虛實之要1)하고 定五度之事니 知此라야 乃足以診이라 是以로 切陰不得陽하면 診消亡하고 得陽不得陰하면 守學不湛2)(2)하니 知左不知右하고 知右不知左하며 知上不知下하고 知先不知後 故로 治不久라 知醜知善하며 知病知不病하며 知高知下하며 知坐知起하며 知行知止하며 用之有紀하면 診道乃具하야 萬世不殆라 起所有餘하야 知所不足하며 度事上下하야 脈事因格(3)이라是以로 形弱氣虛하면 死하며 形氣有餘하니 脈氣不足하면 死하고 脈氣有餘하니 形氣不足하면 生이라

【校勘】

① 取虛實之要: 《語譯》에 “《藏本》에는 ‘虛實之要’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② 守學不湛: 《直解》에는 ‘守學不謹’으로, 《吳注本》에는 ‘守學不知’로 되어 있다.

【字句解】

① 追: 逐也, 爲을 추

② 淙: 深也, 깊을 담

③ 格: 至也, 이를 격

【較註】

① 至陰虛 天氣絕 至陽盛 地氣不足

王·馬·景岳·張·姚·高·黃 등은 “至陰이 虛하면 天氣가 離하여 下降하지 못하고, 至陽이 盛하면 地氣가 微弱하여 升하지 못하니 이것이 이를바 ‘不交通也’라는 것이다. ‘至’는 지극히 盛함이다.”<sup>90)</sup>고 하였고, 吳는 “至陰은 脾요, 天氣는 肺氣이다.

論自章91] 診不合理是 自以爲章이라 ○黃: 傳之後世에 反亂自章이라

90) ◉王: 至陰虛하면 天氣絕而不降하고 至陽盛하면 地氣微而不升하니 是所謂不交通也라 至는 謂至盛이라 ○馬: 此는 設言陰陽偏虛者는 天地不交하니 惟至人則陰陽並交하고 惟聖人則持診有道이라 地는 位乎下하야 位乎陰이니 若至陰虛하면 則天氣絕而不降은 何也오 以其無所升也라 天은 位乎上하야 位乎陽이니 若至陽盛하면 則地氣無自而足은 何也오 以其無所降也라 此는 設言也라 ○景岳: 至陰至陽은 卽天地之道이니 設有乖離면 敗亂乃至라 六微旨大論에 曰 氣之升降은 天地之更用이라 升已而降하니 降者謂天이요 降已而升하니 升者謂地라 天氣下降에 氣流於地하고 地氣上升에 氣勝於天이라하니 故로 易에 以地在天上而爲泰는 言其交也요 天在地下而爲否는 言其不交也니 此云至陰虛者는 言地

至陽은 壯火요, 地氣는 脾胃의 氣이다. 脾氣가 虛한 사람은 肺氣 또한 반드시 絶하게 되니, 그 이유는 土는 金의 母가 되니 母가 痘를면 子는 絶하기 때문이다. 壯火가 盛한 사람은 中氣 또한 반드시 衰하니 經에 이른바 ‘壯火散亂’이 이것이다.”<sup>91)</sup>고 하였다.

### ② 隱陽並交 至人之所行

王·馬·吳·景岳·張·姚·高·黃 등은 “‘交’는 交通하는 것이다. 오직 至人이라야 능히 調節하고 다스려 行할 수 있다.”<sup>92)</sup>고 하였다.

### ③ 隱陽並交者 陽氣先至 陰氣後至

王·馬·吳·景岳·張·姚·高·黃 등은 “이른바 ‘並交’ 경우 陽氣가 먼저 이르고, 陰氣가 뒤에 이른다는 것’은 陽은 빠르고, 陰은 늦기 때문이다.”<sup>93)</sup>고 하였다.

### ④ 是以 聖人持診之道 先後陰陽而持之

氣若衰而不升이니 不升則無以降 故此 天氣絕하니 至陽盛者는 言天氣若亢而不降[니] 不降則無以升 故此 地氣不足[니] 在陰陽二氣는 五藏其根하야 更相為用[니] 不可偏廢라 此는 借天地自然之道하야 以喻人之陰陽貴和也라 丹溪이 此虛盛二字하야 以證陽常有餘陰常不足하니 其設左矣라 ○張: 水熱穴論이 [니] 腎者는 至陰也요 至陰者는 盛水也라하고 解精微論이 [니] 脉者는 至陰也요 至陰者 腎之精也라 蒸在天為氣요 在下為水며 在氣為陽이요 在腎為精이며 氣生于水하고 陽生于精하니 是以至陰虛하면 天氣絕이라 至陽者는 天之陽也라 天地之氣는 日月運行에 寒暑往來하야 交相和平者也니 如天氣盛하면 則地氣不足矣라 按太陰陽明篇에 [니] 陽者는 天氣也니 主外하고 陰者는 地氣也니 主內라 故此 陽道는 行乎在陰道는 虛乎 故此 喉主天氣하고 喉主地氣라 故此 陽受風氣하고 陰受濕氣하니 是는 人之陰陽上下 表裏氣血이 以配天地之陰陽者也라 ○姚: 即如天池之氣가 陽根于陰하야 陰為陽之根이 是為至陰이니 陰虛則不能維陽而氣上浮이 是天氣絕이라 陰本于陽하야 陽為陰之本이 是為至陽이니 陽盛則天氣亢而火燥水故此 地氣因之不足也라 ○高: 至陰은 太陰也니 至陰虛하면 則人之地氣不升하고 地氣不升 故此 天氣絕이라 至陽은 太陽也니 至陽盛하면 則人之天氣有餘하고 天氣有餘 故此 地氣不足이라 ○黃: 人之陰陽은 上下相交하니 陽蒸而化鬱陰이 是為地氣도 且升而化清陽이 是為天氣도 至陰虛則陽根下收하야 天氣絕하면 至陽盛則陰根上亡하야 地氣不足이라

91) ○吳: 至陰은 脾也라 天氣는 胃氣도니 至陽은 壮火도라 地氣는 脾胃之氣도라 言脾氣虛者는 胃氣必絕라 金以土爲母하니 母病故此 子絕也라 壯火盛者는 中氣必衰하니 經所謂壯火散亂이 是也라

92) ○王: 交는 謂交通也라 惟至人이라야 乃能調理使行也라 ○馬: 人有陽氣하니 陽氣者는 蔽氣도니 人有陰氣하니 陰氣者는 蔽氣도라 能使陰陽二氣混 交通于一處者는 惟至人이라 乃能行之라 ○吳: 陰陽并交하면 則血氣流通하야 泰之象也라 足至人調攝之術이라 ○景岳: 並交者는 陰陽不相失而得其和平也라 此는 其調攝之妙니 惟至人者이 乃能行之라 ○張: 陰陽並交者는 論陰陽寒暑之交相出入也라 至人者는 和于陰陽하고 調于四時하며 呼吸精氣하야 獨立守靜하야 而復歸于無極이라 故此 至陰陽並交者는 至人之所行이라하니라 ○姚: 並交者는 論陰陽相濟而無偏勝之害라 故此 惟至人能之也라 ○高: 必陰陽并交하면 無有虛實이니 乃至人之所行이라 ○黃: 偏盛偏虛而不交는 皆非平氣도니 惟陰陽並交는 則上下調和니 乃是至人之所行이라

93) ○王: 陰陽之氣並行而交通於一處者는 則當陽氣先至하고 陰氣後至라 何者오 陽速而陰遲也인 새내기 槓樞經에 [니] 所謂並交者는 並行一數也라하니 由此則二氣도 亦交會於一處이라 ○馬: 所謂並交者 陽氣先至則陰氣後至는 正以陽速而陰遲也라 盡樞五十蔭篇에 所謂並交者는 並行一數이라하니라 ○吳: 言欲陰陽并交者는 何先何後乎이 陽氣先其所往하면 則陰氣隨之矣라 ○景岳: 凡陰陽之道은 陽則陰靜하고 陽則陰柔하여 陽則陰隨하고 陽施陰受하야 陽升陰降하고 陽前陰後하며 陽上陰下하고 陽左陰右하며 數者는 陽이요 逆者는 陰이며 表者는 陽이요 裏者는 陰이며 逆者는 陽이요 去者는 陰이며 進者는 陽이요 退者는 陰이며 發生者는 陽이요 收藏者는 陰이며 陽之行速하고 陰之行遲라 故此 陰陽并交者는 必陽先至而陰後至라 ○張: 陽氣先至者는 謂四時之氣始于一陽初動이라 ○姚: 然이나 以相消言 則見其并交하고 而即其氣機之運動 則不無先後之次第하니 何則고 天地之道는 地隨天轉하며 月隨日行하며 脊隨夫仰하며 血隨氣生하니 其先其後는 乃不易之至理니 並僅如往言陽速陰遲而已也라 ○高: 陰陽并交者는 陽氣先至하고 陰氣後至라 人在之氣는 合于四時豆대 始于一陽之初動이니 ○黃: 陰陽并交者는 陽氣先至하고 陰氣後至하야 陽俱陰隨하니 治安之象이라

馬·吳·景岳·張·高·黃 등은 “聖人은 陰陽을 본받아 행하므로 먼저 陽을 診察하고, 그 다음에 陰을 診察한다.”<sup>94)</sup>고 하였다.

⑤ 奇恒之勢 乃六十首 診合微之事 追陰陽之變 章五中之情 其中之論 取虛實之要 定五度之事 知此乃足以診

王·馬·吳·景岳·張·高 등은 “‘奇’는 異의 뜻이요, ‘恒’은 常의 뜻이다. ‘六十首’는 즉 「禁服篇」에서 말한 ‘九鍼六十篇의 뜻에 通하였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診合微之事’는 여러 診法을 참고하여 精微롭게 하는 것이요, ‘追陰陽之變’은 陰陽盛衰의 變함을 탐구하는 것이다. ‘章’은 밝게 안다는 뜻이요, ‘五中’은 五藏이요, ‘五度’는 앞에서 언급한 十度이다. 반드시 이것들을 이해하고 그 미묘함을 잘 參悟하여야 능히 診察을 잘한다고 할 만하다.”<sup>95)</sup>고 하였다.

⑥ 切陰不得陽 診消亡 得陽不得陰 守學不湛 知左不知右 知右不知左 知上不知下 知先不知後 故治不久

馬·景岳·張·高·黃 등은 “陰만 診察하고 陽은 診察하지 않으면 虛妄된 것이다, 陽만 診察하고 陰은 診察하지 않으면 배움을 지키는 것이 깊지 못한 것이다. 右만 알고 左는 알지 못하고 左만 알고 右는 알지 못하며, 上만 알고 下는 알지 못하며, 先만 알고 後는 알지 못하여 반절만 알고 그치니 치료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sup>96)</sup>고 하였다.

94) ○馬: 是以聖人이 于此에 有持診之道는 先陽後陰而持之耳라 ○吳: 聖人은 法象于陰陽 故先持陽而後持陰也라 ○景岳: 聖人之持診者는 在察陰陽先後하야 以測其精要也라 ○張: 先後陰陽而持之者는 按尺寸 하야 以候脈之來去하야 ○高: 持診之道는 必以聖人為法이니 是以로 聖人은 從陰度陽하고 從陽度陰하야 先後陰陽而持之라 ○黃: 陰陽之至에 有先有後하니 是以로 聖人持診之道는 先後陰陽而持之라

95) ○王: 奇恒勢六十首는 今世不傳이라 ○馬: 奇恒者는 古經篇名이요 六十首는 古人珍法이라 合微陰陽五中者는 皆古經篇名이라 五度는 即前十度也라 ○吳: 陰陽之變者為奇平者為恒이라 六十首者는 六十年間也라 合微는 合于幽微이라變은 甚甚而變也라 五中은 五藏也라 五度는 脈藏肉筋俞五度也라 ○景岳: 奇는 異의 뜻이요 恒은 常의 뜻이요 六十首는 即禁服篇所謂通於九鍼六十篇之義나 今失其傳矣라 診合微之事者는 參諸診之法而合其精微也라 追陰陽之變者는 求陰陽盛衰의 變이요 章은 明也라 五中은 五藏也라 五度는 即前十度也라 必能會比數者而參伍其妙이라 斯足以言診矣라 ○張: 奇恒之勢는 各以六十으로 為首하니 即診要經終과 脈解諸篇所論이 是也라 診合微之事者는 聲合五音 色合五行 脈合陰陽也라 陰陽之變者는 天地陰陽之氣에 有循化政令하야 變易災眚也라 五中之情은 五內之情志이라 取虛實之要定五度之事者는 要虛實而定五度也라 五度는 度神之有餘有不足과 氣有餘有不足과 血有餘有不足과 形有餘有不足과 志有餘有不足也라 又有五實死하고 五虛死어늘 其時有生者는 如蒙粥入胃하고 排泄注止하면 則虛者도 活하며 身汗하고 得後利尿하면 則實者도 活하니 此는 皆聖人持診之要도니 不可不知也라 ○高: 奇는 異의 뜻이요 恒은 常의 뜻이요 凡奇恒之脈勢가 合于六氣라 六氣는 六十日이 為一氣이요 奇脈恒脈은 脈勢不同하야 六十日而更一氣하니 乃以六十爲首이라 診合微之事者는 脈合五行하고 時合六氣하고 診至微이라 追陰陽之變者는 散陰離陽이오 診無常行은 理至變이라 章五中之病者는 五運在中하야 合于五藏하니 診合微之事하고 追陰陽之變이라 始能章五中之情也니 即合微陰陽五中而論之라 其中之論은 取虛實之要하야 以定五度之事라 五度는 即上文之五診也라 必知此리야 乃足以診이라

96) ○馬: 診消亡은 診法滅亡도라 守學不湛者는 守學不明하니 ○吳: 診消亡은 謂診道不行子世也라 守學不知는 謂守其口耳之學하고 不知其餘也라 ○景岳: 切陰不得陽 診消亡하는 言人生以陽爲主로대 不得其陽하니 無得不亡이리오 如陰陽別論에 曰 所謂陰者는 貢藏也니 見則爲敗하고 敗必死矣요 所謂陽者는 胃胱之陽也라하며 平人氣象論에 曰 人無胃氣死하고 脈無胃氣死라하니 是皆言此陽字라 漢은 明也라 若但知得陽하고 而不知陽中有陰와 及陰平陽秘之道者는 是爲偏守其學이니 亦屬不明이라 如左右上下先後者는 皆陰陽之道也니 使不知左右하면 則不明升降之理요 不知上下하면 則不明清濁之宜요 不知先後하면 則不明緩急之用이니 安望其久安長治하니 而萬世不殆哉아 ○張: 持診之道에 有陰陽逆從하고 有左右前後上下之診하니 論在脈要精微篇中하니라 漢은 甚이라

⑦ 知醜知善 知病知不病 知高知下 知坐知起 知行知止 用之有紀 診道乃具 萬世不殆

王·馬·吳·景岳·高·黃 등은 “위의 내용은 모두 診察하는 理致를 말한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미칠 罪는 엄청나게 끔 것이다. 痘의 善惡과 形의 動靜을 마땅히 辨別해야 하니 이 뜻을 밝게 알아 條理있게 사용한다면 診察하는 法은 모두 갖추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sup>97)</sup>고 하였다.

#### ⑧ 起所有餘 知所不足

王·馬 등은 “‘寶命全形論’에 ‘內外相得 無以形先’이라 하니, 내 몸이 有餘하다는 것을 알아야 병든 사람의 不足한 것을 알 수 있다”<sup>98)</sup>고 하였고, 吳·景岳·高 등은 “‘起’는 痘의 시작을 뜻한다. ‘有餘’는 邪氣가 有餘한 것이요, ‘不足’은 正氣가 不足한 것이다. 痘이 시작되는 것은 비록 邪氣가 有餘하여 시작되나 또한 正氣가 虛弱하여 邪氣의 侵襲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sup>99)</sup>고 하였고, 張은 “有餘한 痘은 일어나서 움직여야 치료되고, 부족한 병은 앓거나 누워 있어야 치료된다. 有餘한 병의 治療方法을 알면 부족한 병의 治療方法도 알 수 있으니 이것을 알면 저것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이다.”<sup>100)</sup>고 하였다.

- 考察 : ‘有餘’에 대해 王 등은 ‘病者の 不足에 대한 내 몸의 상대적인 有餘’라 하였고, 吳 등은 ‘邪氣의 有餘’라 하였고, 張은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痘’이라 하였다. 3가지 해석이 모두 理致에 합당하나 ‘상대적인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문맥의 흐름상 張의 해석은 따르기 어렵고, 나머지 2가지의 해석은 모두 無妨하다고 思料된다.

#### ⑨ 度事上下 脈事因格

王·馬·吳·景岳·張·高·黃 등은 “形情의 高下를 헤아려 안다면 脈事하는 일은 그것으로 인하여 通達할 수 있다.”<sup>101)</sup>

○高: 苟不知此以診하니 是以로 切陰而不得陽이라 雖曰診之나 人必消亡하니 得陽而不得陰이오 曰守所厚는 不能自灌이라 潤은 信이라 左右上下先後를 不能盡知 故도 曰治其病 而人不久라 ○黃: 是以로 切陰不得其陽이면 則診法消亡이오 得陽不得乎陰이면 是守厚不湛이니 知右不知左하며 知左不知右하며 知上不知下하며 知先不知後하며 得半而止 故로 治不久라

97) ○王: 聖人持診之明誠也라 ○馬: 凡左右上下 前後齶善 痘否高下 坐起行止는 皆不能知니 是後人不明診法也라 故로 必診道乃具라 萬世不殆라 ○吳: 紀는 法이라 知之至者는 行之必盡 故로 久而不殆라 ○景岳: 凡此數者는 皆有對待之理니 若差之毫釐면 則糢以千里 故로 凡病之善惡과 形之動靜에 皆所當辨이니 能明此義而用之有紀면 診道斯備 故로 可萬世無殆矣라 紀는 條理也라 殆는 危地라 ○高: 醜與善 痘與不病 高與下 坐與起 行與止를 必盡知之然後에 用之有紀하면 診道乃具하야 雖萬世不殆라 ○黃: 知病知不病하며 知醜知善하며 知高如下며 知坐知起하며 知行知止하고 用之有紀면 診道乃具라 傳之將來에 萬世不殆라

98) ○王: 寶命全形論에 曰 內外相得하면 無以形先이라하니 言起己身之有餘하면 則當知病人之不足也라 ○馬: 大凡醫人은 因己有餘하니 不能量人之不足이어늘 故能起己有餘하야 知人不足하면 則必無妄治之患이오 ○吳: 起는 痘之始也라 有餘은 客邪有餘라 不足은 正氣不足이라 言病之所起는 雖云有餘나 然이나 亦可以知其虛而受邪矣라 ○景岳: 起는 興起也라 言將治其有餘에 察其不足이니 蓋邪氣多有餘하고 正氣多不足이어늘 若只知有餘 而忘其不足하면 則取敗之道也라 此는 示人以根本當辨之意라 ○高: 更必起所有餘하야 知所不足하면 診道乃備라

100) ○張: 有餘之病은 則起而行하고 不足之病은 多坐而臥하니 知起之所爲有餘면 則知所以不足이나 無知此면 即可以知彼矣 知一이면 可以知十也라

101) ○王: 度事上下之宜하면 脈事因而至於微妙矣라 格은 至也라 ○馬:又能 度其事之上下와 脈之因革하면 則診法無不備矣라 ○吳: 格者는 窮至其理也라 言揆度病情之高下하고 而脈事因之하야 窮至其理也라 ○景岳:

고 하였다.

#### ⑩ 形弱氣虛 死

王·馬·吳·景岳·張·高·黃 등은 “그 形體가 衰弱하고, 脈氣도 虛하면 形氣가 모두 虧損된 것이므로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2)</sup>고 하였다.

#### ⑪ 形氣有餘 脈氣不足 死

王·馬·吳·景岳·張·高·黃 등은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비록 痘이 없는 듯 보이나, 脉氣는 이미 虧損된 상태이다.”<sup>103)</sup>고 하였다.

#### ⑫ 脈氣有餘 形氣不足 生

王·馬·景岳·張·高·黃 등은 “만약 脈氣는 有餘하나 形氣는 不足하면 血氣가 倦怠하고 神氣가 총만하니 능히 살 수 있다.”<sup>104)</sup>고 하였다.

#### 【直譯】

至陰이 虛하면 天氣가 蒼어지고 至陽이 盛하면 地氣가 부족해지니 陰陽을 交通케 하는 것은 至人만이 할 수 있다. 陰陽이 交通되면 陽氣가 먼저 이르고 陰氣는 뒤에 이른다. 그러므로 聖人の 診察하는 法道는 陰陽의 先後를 파악하고, 《奇恒之勢 60首》를 참고하며 診察을 통해 얻은 微細한 事案을 종합하며, 음양의 변화를 委고, 五臟의 病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니, 그 속에 들어 있는 論은 虛實의 要諦를 取合한 것이며, 五度의 일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理致를 알아야 비로소 제대로 診察할 수 있다. 그러므로 陰을 診脈하되 陽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診察은 虛妄한 것이고, 陽을 診脈하되 陰을 알지 못하면 배운 醫道가 깊지 못한 것이다. 左를 알면서 그 右를 알지 못하고, 右를 알면서 그 左를 알지 못하며, 上을 알면서 그 下를 알지 못하고, 先을 알면서 그 後를 알지 못하는 治療는 오래가지 못한다. 醜한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善한 것도 알아야 하고, 痘을 알아야 할 뿐

能度形情之高下하면 則脈事因之하야 可格至而知也라 ○張: 事者는 諸其通變이요 上下하는 氣之通于天과 痘之變化이요 格은 窮究이니 言當先度其上下之通變하고 因而窮究其脈之通變이라 ○高: 度은 即上文五度十度이요 脈은 即上文持診之道이라 度事上下는 通天徹地이요 脈事因格은 有常有變이요 ○黃: 台其上下而揆度之하면 脈事乃至라 蓋上有餘者 下本不足하고 下有餘者 上本不足은 人之常이요 上下皆有餘커나皆不足者는 十中之一耳니 未可概論也라 於其有餘之中에 而得不足之象을 是謂上工이라

102) ○王: 中外俱不足也라 ○馬: 此는 言形氣는 宜相得이오 不宜相失이니 而備此法자는 爲十全이요 玉機真藏論에 曰 形氣相得을 謂之可治요 形氣相失을 謂之難治라하니라 然이나 形은 有形者也요 氣는 無形者也니 其氣必于脈乎驗之라是以로 形弱氣虛者는 死하니 蓋二者俱不足也라 ○吳: 中外俱敗故也라 ○景岳: 中外俱敗也라 ○張: 形弱氣虛者는 死此又無論其脈之平與不平하고 度其形氣하야 而知其死矣라 ○高: 度其形弱하고 脈其氣虛하라 形氣皆虧故로 死라 ○黃: 形弱氣虛死은 內外皆不足也라

103) ○王: 藏衰 故로 脈不足也라 ○馬: 形氣有餘而脈氣不足者도 亦死하니 蓋形은 以脈爲主也라 ○吳: 藏氣損壞故也라 ○景岳: 外貌無恙이나 藏氣已壞也라 ○張: 形氣有餘脈氣不足者死어니와 脈氣有餘形氣不足者生은 是當以形證脈氣通變으로 審之而後에 可必其死生也라 ○高: 度其形氣有餘하고 脈其脈氣不足하면 外餘內損이니 亦死라 ○黃: 形氣有餘 脈氣不足死는 外有餘而內不足也라

104) ○王: 藏盛 故로 脈氣有餘라 ○馬: 若脈氣有餘而形氣不足하면 則血氣足而神氣充하니 即可以有生矣라 ○景岳: 藏氣未傷者는 形衰無害니 蓋以根本爲主也라 又如三部九候論에 曰 形肉已脫하면 九候雖謂라도 猶死라하니 蓋脫與不足은 本自不同이로대 而形肉既脫하면 脾元絕矣 故로 脈氣雖謂나 亦所不治니 當與此節로 互求其義라 ○張: 形氣有餘脈氣不足者死어니와 脈氣有餘形氣不足者生은 是當以形證脈氣通變으로 審之而後에 可必其死生也라 ○高: 脈其脈氣有餘하고 度其形氣不足하면 内餘外損 故로 生이라 ○黃: 脈氣有餘 形氣不足生은 内有餘而外不足이라

만 아니라 病이 아닌 경우도 알아야 하며, 높은 곳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곳도 알아야 하고, 앉을 곳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 곳도 알아야 하며, 行함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멈추는 것도 알아야 하나 이래야 運用하는데 條理가 있어 診法이 완전하게 되니 영원토록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邪氣의 有餘함을 통하여 正氣의 부족한 면을 알며, 上下에 나타나는 病情을 헤아려 診察하면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身體가 虛弱하고 正氣가 衰弱하면 죽고, 形氣가 남아돌고 脈氣가 부족하면 죽으며, 脈氣가 남아돌고 形氣가 부족하면 산다.

## 2) 제2절 診有大方

### 【原文】

是以도 診有大方하니 坐起有常하고 出入有行하야 以轉神明이라 必清必淨1)하야 上觀下觀하야 司(1)八正(2)邪하야 別五中(3)部하고 按脈動靜이니 循尺滑滌하며 寒溫之意하고 視其大小하야 合之病能(4)하면 逆從以得이오 復知病名하야 診可十全하고 不失人情 故로 診之에 或視息視意 故로不失條理니 道甚明察 故로 能長久하고 不知此道면 失經絕理하야 亡言2)妄期하니 此謂失道니라

### 【校勘】

① 必淨: 《張馬合編》에는 '必靜'으로 되어 있으며, 《校釋》에 "《元刻本》에는 '必靜'으로 되어 있으나, 《影宋本》과 《醫統本》에는 '必淨'으로 되어 있는데 安靜이라는 뜻으로 서로 통한다."고 하였다.

② 亡言: 《吳注本》에는 '妄言'으로 되어 있으며, 《語譯》에 "《明抄本》에는 '妄言'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 【字句解】

① 司: 候也, 살필사

② 八正: 八節의 氣運이 八方에 應하는 것

③ 五中: 五臟을 말한다.

④ 能: 態也, 모양태

### 【較註】

① 診有大方 坐起有常

王·馬·吳·景岳·姚·高·黃 등은 "起居함에 恒常함이 있으면 息力이 조절되니 診察하는 방법에 우선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② 出入有行 以轉神明

王·吳·景岳·張·姚·高·黃 등은 "起居를 일정하게 함을 貴하게 여기는 것은 어째서인가? 출입하고 행동할 때에 神明이 따라서 운전하기 때문임을 밝혔다."고 하였다.

105) ○王: 坐起有常하니 則息力調適 故로 診之方法에 必先用之라 ○馬: 是以坐起有常이라 乃爲醫工者는 其自己坐起有常이라 ○吳: 此下는 論作醫之方이라 大方은 大法也라 坐起有常은 非禮不動也라 ○景岳: 大方者는 醫家之大法也라 坐起有常은 則學勤不苟而先正其身이니 身正於外하면 心必隨之 故로 診之大方은 必先乎此라 ○姚: 坐起有常하면 則息力調適 故로 診之方法에 必先用之라 ○高: 是以坐起有常이라 方은 痘法也라 其法이 不外度事脈事하니 度其坐起有常이라 ○黃: 診有大方하니 坐起有常이라

106) ○王: 診所以貴坐起有常者는 何오 以出入行運에 皆神明隨轉也라 ○吳: 行은 去聲이라 行은 德行也라 隨는 以活人爲事라 人之大造는 系于神明하니 必于出入之時에 無一不敬하야 念念皆轉하야 則以德勤天하고 以誠感神하니 素可以回神明于冲漠之表하야 而人可活也라 ○景岳: 行은 德行也라 隨는 以活人爲事하니 其於出入之時에 念念皆轉하야 無一不

### ③ 必清必淨 上觀下觀 司八正邪 別五中部

王·吳·景岳·張·姚·高·黃 등은 "반드시 清淨하게 하여 心志가 專一하고 神明이 밝게 들어난 이후에 上觀하여 그 神色聲音를 살피고, 下觀하여 그 形體逆順을 살핀다. '司'는 관찰한다는 뜻이고, '別'은 살핀다는 뜻이다. 八節八風의 正邪를 관찰하여 그 表를 살피고, 五臟五行의 部位를 살펴서 그 속을 살핀다."고 하였다.

④ 按脈動靜 循尺滑滌 寒溫之意 視其大小 合之病能 逆從以得復知病名 診可十全 不失人情

王·馬·吳·景岳·張·姚·高·黃 등은 "脈搏이 오는 것이 역동적이면 陽이고, 靜하면 陰이다. 脈이 滑하면 尺부의 皮膚 또한 滑하고, 脈이 滌하면 尺부의 皮膚 또한 滌하며, 脈이 寒하면 尺부의 皮膚 또한 寒하고, 脈이 溫하면 尺부의 皮膚 또한 溫하다. '大小'는 二便이다. 左右上下四時를 逆行하는 것이 逆이고, 左右上下四時를 따르는 것이 從이다. 人情은 病人的 情이다."고 하였다.

敬하면 則德能動天하고 誠能格心 故로 可以轉運周旋하야 而無往弗神矣라 ○張: 轉神明者는 轉己之神하야 以候彼之氣也라 ○姚: 外以運動其神機하고 內以清淨其視聽而後에 八節所感之邪와 五臟部分之病을 皆可以按尺寸而知之矣라 ○高: 出入有行이라 可以專心主之神明이라 ○黃: 出入有行하야 動止不亂하니 所以轉運一身之神明하야 使之察微而通幽也라

107) ○王: 上觀은 謂氣色이오 下觀은 謂形氣也라 八正은 謂八節之正候요 五中은 謂五臟之部分이라 ○吳: 上觀은 謂觀面間神色也라 下觀은 謂觀胸腹腰足也라 司는 推步也라 別은 明審也라 推步八風正邪하고 明審五臟部曲이라 ○景岳: 必清必淨하면 則心專志一而神明見하니 然後에 上觀之以察其神色聲音하고 下觀之以察其形體逆順이라 司는 候也요 別는 審也니 候八節八風之正邪하야 以察其表하고 審五臟五行之部位하야 以察其裏리 ○張: 上觀下觀者는 若視深渺하고 若迎浮雲也라 八正是 日月星辰四時之氣이자 別五中部는 先別五臟之脈也라 ○姚: 外以運動其神機하고 內以清淨其視聽而後에 八節所感之邪와 五臟部分之病을 皆可以按尺寸而知之矣라 ○高: 更當必清必靜하고 上觀下觀이라 司는 主也니 主八正之邪하야 以別五中之部니 此度事上下之法也라 ○黃: 必清必靜하야 上觀下觀하며 司察八正之邪하야 辨別五中之部라

108) ○王: 然後에 按尺寸之動靜하야 而定死生이라 ○馬: 然後에 按病人之脈動靜滑滌과 其寒溫大小와 或逆或從하야 隨定病名하야 斯可以爲十全矣라 ○吳: 脈來動者爲陽이오 靜者爲陰이라 脈滑則尺之皮膚亦滑하고 脉滌則尺之皮膚亦滌하며 脈寒則尺之皮膚亦寒하고 脈溫則尺之皮膚亦溫이라 大小는 二便이라 反左右上下四時를 逆行이오 順左右上下四時를 為從이라 人情은 病人之情이라 ○景岳: 按脈動靜은 可別陰陽하고 滑滌寒溫은 可知虛實이라 全脈滑하면 則尺之皮膚亦滑하고 脈滌하면 則尺之皮膚亦滌하며 脈寒하면 則尺之皮膚亦寒하고 脈溫하면 則尺之皮膚亦溫이라 故로 循尺은 即可以知之循也라 大小는 二便이라 二便은 為約束之門戶니 門戶不要하면 則倉廩不藏하니 得守者生하고 失守者死 故로 視其大小하여 以合病能이라 能은 情狀之謂라 反者爲逆이오 順者爲從이라 必得逆從하고 必知病名하면 庶有定見而無差謬라 論如上法하면 庶可十全이니 其於人情에 尤不可失也라 ○張: 按脈動靜은 候其浮沈遲數也라 循尺滑滌寒溫之意은 謂脈滑者는 尺之皮膚亦滑하고 脈滌者는 尺之皮膚亦滌하며 尺滑其津潤者는 風也요 尺滌者는 風潤也며 尺滑者는 其脈甚躁者는 痘溫也豆 尺膚寒하고 其脈小者는 泄少氣耳 尺膚炬然先熱後寒者는 寒熱也豆 尺膚先寒 久候之而熱者豆 亦寒熱也豆 故로 善謂尺者는 不待寸而呼 善調脈者는 不待尺而呼 能參合而行之者는 可以爲上工이라 視其脈之大小하야 合之病能니 病能者는 奇恒之病也라 逆從者는 神轉不回니 回則不轉也라 名者는 實之質也니 能正其病名而後에 診可十全하야 不失其人情矣라 ○姚: 循은 摭循也豆 尺은 尺膚也豆 滑者는 血實하고 滌者는 血虛이며 寒則氣衰하고 溫則氣盛하니 謂以手撫循尺之皮膚하고 視大小便之通塞하고 而更爲之參驗夫病情하면 診之道其全矣乎인저 然이니 此는 痘醫者分內之事豆이 而不知最難謂停最難測識者가 其惟人情乎인자 有病人之情하며 有旁人之情하며 有同道人之情하야 人情이 種種不一하니 必使之貼然相安而後에 痘乃可得而治也면 則甚矣不失人情之難也라 前臺張景岳이 作類經 활동中有不失人情論하야 曲折周至하고 痘癥數千言하니 感慨無限이라 嘘라 欲治病而使醫者若此其亦可謂不情矣리라 ○高: 接其脈之動靜하고 循其尺膚之滑滌寒溫하고 視其

## ⑤ 故診之 或視息視意 故不失條理

王·吳·景岳·張·高 등은 “호흡의 長短을 헤아리고 脈의 象과 빠르기를 살피기 때문에 診法에 간혹 喘息을 살펴보는 것이다. 호흡과 脉象을 알면 病處를 반드시 알게 되니 聖人의 診察과 條理는 이런 것들을 모두 綜合한다.”<sup>109)</sup>고 하였다.

## ⑥ 道甚明察 故能長久

吳·高·黃 등은 “道에 깊고 밝게 살피므로 능히 오래도록 할 수 있다.”<sup>110)</sup>고 하였다.

## ⑦ 不知此道 失經絕理 亡言妄期 此謂失道

王·吳·景岳·張·高·黃 등은 “이 道를 알지 못하면 망령된 말을 하고, 망령되어 기약하니 위험하게 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sup>111)</sup>고 하였다.

## 【直譯】

그러므로 診察함에는 大法이 있으니, 醫師는 앓고 서는 것에 항상됨이 있게 하며, 출입함에 德行이 있게 하여 神明을 잘 運用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精神을 清淨하게 하여 上下各部의 情況을 診察하고, 四時八節의 邪氣를 살피고, 五臟의 情況을 辨別하고, 脉象의 動靜을 살피고, 尺部를 짚어 滑澀·寒溫을 別區하며, 대소변의 变화를 보고, 이러한 것들에 病態를 결합시켜 疾病의 順逆를 판단하고 病名을 알아야 하니 이러케 하여 診察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환자의 情緒를 놓쳐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診察할 때는 때로는 호흡을 살피고 때로는 意中을 관찰하여야 條理있게 된다. 그러므로 道가 깊어 명확히 診察하므로 치료를 오래할 수 있다. 이러한 理致을 알지 못하고 원칙과 원리를 위반하여 멋대로 病情을 論하고 멋대로 生死의 時期를 결정짓는 것을 失道라고 한다.

## 의 역

雷公이 여쭙기를, 隅陽의 氣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데, 어진 것이 逆이고, 어떤 것이 順입니까?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陽氣는 左로부터 右로 上行하는 것이 順이고, 陰氣는 右로부터 左로 下行하는 것이 順이며, 노인의 陽

脈之大小하야 而合之病能니 此脈事因格之法也라. 能度能脈이면 則逆從以得이오 復知病名이면 診可十全而不失人情矣라 ○黃: 按脈動靜하고 循尺寸滑澀寒溫之意하며 視其脈之大小하야 合之病之形能하면 逆從以得이오 復知病名이면 診可十全하야 不失人情이라

109) ○王: 數息之長短하고 候脈之至數 故로 診之法에 或視喘息也라 知息合脈하면 病處必知니 聖人察候條理는 斯皆合也라 ○吳: 視息은 視其呼吸高下도라 視意는 視其志趣遠近苦樂疑惑도라 이 條理자는 如井之有條하고 如脈之有理도라 ○景岳: 視息者는 察呼吸하여 以觀其氣요 視意者는 察形色하여 以觀其情이라 凡此諸法은 皆診有大方 診可十全之道니 知之者는 故로 能不失條理라 條者는 猶幹之有枝요 理者는 猶物之有脈이니 卽脈絡網紀之謂라 ○張: 視息者는 候呼吸之往來와 脈之去至도라 視意者는 閉戶塞竈하고 繫之病者하야 數問其情하야 以從其意라 ○高: 故로 診之之道에 或視息하니 視息은 脈之也요 或視意하니 視意는 度之也라 脈之度之 故로不失條理하야 道甚明察이라

110) ○吳: 長久는 萬世不殆도라 ○高: 如是故로 能長久而不敝라 ○黃: 道甚明察 故로 能長久라

111) ○王: 謂失精微至妙之道도라 ○吳: 失經絕理는 謂失乎經旨하고 桎乎常理도라 ○景岳: 不知此道면 則亡言妄期하야 未有不殆者矣라 ○張: 得神者昌하고 失神者亡이라 亡言者는 亡妄之言이라 不知陰道면 妄與生死之期하니 此失經絕理니 是謂失道矣라 ○高: 若不知此道면 則失經絕理이야 亡言妄期라 亡言은 無徵之言도라 妄期는 妄與生死之期이니 該如是也毋是謂失道라 ○黃: 不知此道하야 失經而絕理하면 此謂失道니 妄言而無期하라

氣는 먼저 下부가 衰弱해지므로 上부로부터 下降하는 것이 順이고, 짚은 사람의 陽氣는 먼저 下부가 盛해지므로 下부로부터 上行하는 것이 順이다. 이러한 까닭에 봄여름의 질병(陽이 不足하여 생긴 痘)에 陽證 陽脈이 나타나면 살고 陰證 陰脈이 나타나면 죽으며, 이와 반대로 가을겨울(陰이 不足하여 생긴 痘)의 질병에 陰證 陰脈이 나타나면 산다. 따라서 氣의 盛衰를 불문하고 氣가 逆하여 調和롭지 않으면 모두 厥證이 발생한다.

雷公이 여쭙기를, 氣가 有餘한 사람에게도 厥證이 발생합니까?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陽氣가 上升하여 下降하지 않으면 寒厥이 발생하여 膝部에까지 파급되는데, 짚은 사람(陰氣下降이 順)은 陽氣가 主가 되기 때문에 가을겨울(陰氣가上升하므로 逆이 됨)에 죽고, 노인(陰氣上升이 順)은 가을겨울(陰氣가上升하므로 順)이 되어도 산다. 氣가 上升하여 下降하지 않으면 頭痛 등의 巍頂 질환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厥證은 陽證인 것 같지만 陽證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陰證인 것 같지만 陰證인 근거를 살필 수 없다. 이는 五臟의 氣가 막힌 것으로 뚜렷한 徵候가 없어 마치 異野에 서 있는 듯하고, 빈방에 갇힌 듯하여 근근히 살지만 하루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므로 氣가 虛하여 厥證이 발생하면 虛妄한 꿈을 많이 꾸고 厥이 極에 달하면 昏迷한 상태에 이른다. 三陽脈이 끊어지려 하고 三陰脈이 微細한 것은 氣가 虛한 것이다. 그러므로 肺氣가 虛하면 金氣運이不足하여 金氣運을 추구하므로 褐色의 물건이 보이거나 사람이 참살되어 유혈이 낭자한 꿈을 꾸고, 金氣運이 왕성할 때를 만나면 전쟁하는 꿈을꾼다. 腎氣가 虛하면 水氣運이不足하여 水氣運을 추구하므로 배나 사람이 물에 빠지는 꿈을 꾸고, 水氣運이 왕성할 때를 만나면 물속에 潛伏하는 꿈을 꾸거나, 두려울 만한 꿈을꾼다. 肝氣가 虛하면 木氣運이不足하여 木氣運을 추구하므로 菌香, 生草의 꿈을 꾸며, 木氣運이 왕성할 때를 만나면 나무 아래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는 꿈을꾼다. 心氣가 虛하면 火氣運이不足하여 火氣運을 추구하므로 꿈에 불같은 陽類의 물건을 얻는 꿈을 꾸고, 火氣運이 왕성할 때를 만나면 큰 불길이 타오르는 꿈을꾼다. 脾氣가 虛하면 土氣運이不足하여 土氣運을 추구하므로 음식이 不足한 꿈을 꾸고, 土氣運이 왕성할 때를 만나면 담을 쌓고 지붕을잇는 꿈을꾼다. 이것은 모두 五臟의 氣가 虛한 때문이니, 陽氣가 남아돌고 陰氣가 부족한 것이므로 외부에 나타나는 증상을 근거로 五臟을 診斷하여 陰陽을 調和시켜야 한다. 그 방법은 脈經篇에 기재되어 있다. 診法에는 五度가 있어 사람을 診察하니 脈度·臟度·肉度·俞度가 그것이다. 陰陽의 理致를 다 알면 사람의 병은 다 알 수 있다. 脈動은 變化無常하여 陰이 끊어졌으나 陽은 오히려 조절된 듯하는 경우가 있어 脈象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診法 고정된 규칙이 없다. 診察時 반드시 환자 신분의 高下를 살펴야 하니, 즉 평민인지 임금인지 公卿大夫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處한 상황에 따라 衣食住 및 생활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스승에게 傳受받는 것을 미처 못 마쳐 의술이 밝지 못하면 질병의 順逆를 分별하지 못하니 이것은 망령된 행동이다. 雖만 고집하여 雄은 놓치며, 陰을 버리고 陽만 집착하여 통합하여 생각할줄 모르니 診察에 밝을 수가 없다. 그러한 醫術이 후세에 전해지면 반드시 反論이 나타날 것이다. 至陰이 虛하면 天地의 교통이 끊어져 天氣가 끊어지고 至陽이 盛하면 天氣가 下降

하지 않으므로 地氣가 부족해지니 陰陽을 交通케 하는 것은 至人만이 할 수 있다. 陰陽이 交通되면 陽성이 陰性보다迅速하므로 陽氣가 먼저 이르고 陰氣는 뒤에 이른다. 그러므로 聖人の 診察하는 法道는 陰陽의 先後를 파악하고, 奇恒之勢 60首를 참고하며 診察을 통해 얻은 微細한 事案을 종합하며, 陰陽의 變化를 죽고, 五臟의 病情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니, 그 속에 들어 있는 論은 虛實의 要諦를 取合한 것이며, 五度의 일정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理致를 알아야 비로소 제대로 診察할 수 있다.

그러므로 陰을 診脈하되 陽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診察은 虛妄한 것이고, 陽을 診脈하되 陰을 알지 못하면 배운 醫道가 깊지 못한 것이다. 左를 알면서 그 右를 알지 못하고, 右를 알면서 그 左를 알지 못하며, 上을 알면서 그 下를 알지 못하고, 先을 알면서 그 後를 알지 못하는 治療는 오래가지 못한다. 醜한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善한 것도 알아야 하고, 病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痘이 아닌 경우도 알아야 하며, 높은 곳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곳도 알아야 하고, 앉을 곳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 곳도 알아야 하며, 行함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주는 것도 알아야 하니 아래야 運用하는데 條理가 있어 診法이 완전하게 되니 영원토록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邪氣는 正氣가 虛하여야 侵襲하므로 邪氣의 有餘함을 통하여 正氣의 부족한 면을 알수 있으며, 上下에 나타나는 病情을 헤아려 診察하면 疾病의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身體가 虛弱하고 正氣가 衰弱하면 죽고, 形氣가 남아들고 氣氣가 부족하면 죽으며, 氣氣가 남아들고 形氣가 부족하면 산다. 그러므로 診察하는 데에는 大法이 있으나, 醫師는 집안에서는 앓고 서는 것에 항상 절도 있게 하며, 밖에서는 德行을 쌓아 神明을 잘 運用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精神을 淸淨하게 하여 上下 각부의 情況을 診察하고, 四時八節의 邪氣를 살피고, 五臟의 情況을 辨別하고, 脈象의 動靜을 살피고, 尺部를 짚어 滑澀 · 寒溫을 別區하며, 大小便의 變化를 보고, 이러한 것들에 病態를 결합시켜 疾病의 順逆를 판단하고 痘名을 알아야 하니 이러케 하여야 診察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환자의 情緒를 놓쳐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診察할 때는 때로는 호흡을 살피고 때로는 意中을 관찰하여야 條理있게 된다. 그러므로 道가 깊어 명확히 診察하므로 치료를 오래할 수 있다. 이러한 理致를 알지 못하고 원칙과 원리를 위반하여 멋대로 痘을 論하고 멋대로 生死의 時期를 결정짓는 것을 失道라고 한다.

## 결      어

‘方’은 診察하는 방법이다. ‘盛衰’는 陰陽氣血의 많고 적음을 말한다. 陽氣는 左側에서 生하여 右側으로 가고, 陰氣는 右側에서 生하여 左側으로 가니, 陽氣는 左側이 많고, 陰氣는 右側이 많다. 그러므로 陽氣가 左側에서 많아 졌다가 右側으로 가면서 줄어드는 것이 順이 되고, 그 반대는 逆이 된다. 陰氣는 右側에서 많아 졌다가 左側으로 가면서 줄어드는 것이 順이 되고, 그 반대는 逆이 된다. 노인은 陽氣가 위가 많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해지므로 이것이 順이고, 그 반대는 逆이 된다. 젊은이는 陽氣가 아래에 많고, 위로 올라가면서 적으므로 이것이 順이고, 그 반대

는 逆이 된다. 이 原則에 입각하여 ‘逆順’을 論하였다. 五臟의 虛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痘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五行의 原則에 입각하여 論하였다. 五診十度의 診斷方法을 제시함으로써 醫師들이 患者를 診斷할 때 반드시 疾病의 정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며, 이와 아울러 양호한 藥 풍토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 참 고 문 헌

-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 林億; 補注黃帝內經素問, 中華書局, 台北.
- 王冰; 黃帝內經素問, 旋風出版社, 台北, 1979.
- 王冰; 黃帝內經素問, 珍倣宋版印, 中華書局.
- 吳崑; 黃帝內經素問吳註, 山東科學技術出版社, 山東, 1983.
- 張介賓; 原本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2.
-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聯國風出版社, 台北, 1977.
- 高世栻; 黃帝內經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85.
-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語解, 大一書局, 台北, 1977.
- 王琦外 四人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서울, 1983.
- 程士德; 素問注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 郭齋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1.
- 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 林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 程士德 主編; 內經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5.
- 朴旻; 國譯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4.
-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0.
- 白貞義·崔一凡; 黃帝內經概論, 논장, 서울, 1988.
-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台聯國風出版社, 台北, 1975.
- 南京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3.
- 姚止庵; 素問經註節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 丹波元簡; 素問識(皇漢醫學叢書), 廣法社, 서울, 1975.
- 張三樞; 大漢韓辭典, 서울, 1990.
- 金赫濟;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 民衆書畫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70.
- 蔡仁植·權賢德·邊元九 共譯; 漢方醫學用語大辭典, 癸丑文化社, 서울, 1983.
- 金賢濟·洪元植共譯; 漢醫學辭典, 成輔社, 서울, 1983.
-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臺北, 1984.
- 金元中 編著; 虛辭辭典, 玄岩社, 서울, 1989.
- 上海中醫學院文獻研究所編; 中國醫籍字典, 江西技術出版社,

- 江西, 1987.
34. 劉世昌·張啓基·許占民·張尊如·吳學章編著; 中醫經典字典, 重慶出版社, 重慶, 1990.
35.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36.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 香港, 1987.